

통(通)목회를 위한 체계적-유기적 행정

새중앙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나문성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8년 5월

Copyright © 2018 Moonsung Na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Systematic and Organic Administration for Tong Ministry A Case Study of Saejungang Church, Anyang, Korea

Moonsung Na

Saejungang Church, Anyang

The modern church is a place where many people gather to worship God within various systematic structures, thus it is inevitable for interpersonal conflicts to arise. In this aspect, the importance of church administration cannot be ignored as a key influence in ameliorating the issues that contemporary churches are facing. It is a vital factor in deciding the vision and direction of the church. There are two components to effective church administration: Systematic and Organic Administration.

Systematic Administration in the church regards the prevention of various possible internal conflicts in order to avoid legal entanglements in secular courts. By doing so, churches could appropriately handle their struggles from within. A good example is establishing church bylaws which includes the structure and administration policies of the church. On the other hand, Organic Administration in church involves the interaction and relationship among different groups inside the church. This concept originates from the church's DNA as rooted in the Bible. Due to the fact that the church represents the Body of Christ, which consists of various organic parts, a management style should reflect this trait. Therefore, balance is necessary between Systematic Administration that deals with legal aspects and Organic Administration with its relational aspects.

Paul clearly states that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In 1 Corinthians 12:26, Paul

explains that all parts of the Body of Christ should work in unison. From this aspect, Organic Administration, which is achieved through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among the congregation members, is needed.

Primarily, the church ought to take care of all issues through Organic Administration; close interaction and cooperation among organizations, departments and congregation members. Then, when the inevitable conflicts occur, Systematic Administration will be applied to resolve them. In the process, balance will be achieved, and God sovereignty will be proclaimed and thus influence the world. Lastly, God's people will unite in the Holy Spirit and will be the church that it was meant to be.

국문초록

통(通)목회를 위한 체계적-유기적 행정
새중앙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나문성

새중앙교회, 안양시

현대교회는 다양한 조직적 구조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언제든지 서로의 이해관계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행정은 교회가 속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교회행정은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토록 중요한 교회행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체계적 행정이고 다른 하나는 유기적 행정이다. 교회행정에 있어서 체계적 행정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좋은 예가 바로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한 교회정관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행정적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다. 반면 교회행정에 있어서 유기적 행정이라 함은 교회의 본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 곧 성도들의 모임이기에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적 연합체이기에 교회를 움직이는 행정 역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의 상호작용과 교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결국 교회는 법률적 측면에서

행해지는 체계적 행정과 교회를 이루는 다양한 성도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행해지는 유기적 행정이 사안에 맞게 적절하고도 균형 있게 시행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연합체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고전12장 26절에서 바울이 천명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한다 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행정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교류, 협력하는 유기적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결국 교회는 일차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유기적 행정적인 측면, 곧 관련된 부서와 기관은 물론 성도들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조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불미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차원, 곧 체계적 행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룰 것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또한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 차

감사의 글	x
표 목차	ix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II. 교회 행정 시스템과 통(通)목회의 이해	5
교회 행정 시스템의 이해	5
교회 행정 시스템의 성서적 이해	7
교회 행정 시스템의 역사적 이해	13
교회 행정 시스템의 목회적 이해	18
통(通)목회의 이해	21
III. 체계적 행정과 유기적 행정의 실행	31
체계적 행정의 실행	31
유기적 행정의 실행	38
IV. 체계적 행정과 유기적 행정 실행에 따른 통(通)목회에 미치는 영향	47
체계적 행정의 사례	47
유기적 행정의 사례	51
체계적 행정과 유기적 행정에 대한 평가	56
V. 요약 및 결론	59
연구의 요약	59
연구의 결론	60

부록	64
참고 문헌	92

표 목차

<표 1> 통(通)목회, 전세대 사역.....	29
<표 2> 조직체와 유기체 비교	47
<표 3> 전세대 아웃리치 팀 역할 분담표.....	56
<표 4> 통(通)목회, 체계적-유기적 행정.....	65

감사의 글

우리 인생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인 새중앙교회를 만났으며, 좋은 아내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귀한 만남은 드루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업의 과정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 걱정하였지만, 이렇게 과정도 무사히 마치고 논문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고, 공부하는 동안 조금의 나태함도 허락치 않도록 지도해주신 조병호 교수님,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도록 지도해주신 김영래 교수님,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한 시각으로 강의를 해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과정을 시작 할 때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기도해 주신 새중앙교회 박중식 원로 목사님과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에서도 많은 배려와 큰 힘이 되어주신 황덕영 담임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학업을 위해 동고동락(同苦同樂)한 양정모목사와 박재관목사 그리고 필요한 자료와 늦은 시간까지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해준 사랑하는 목회행정실 동역자들인 김태진강도사, 이정환전도사, 박호세전도사, 명화영전도사와 한경성간사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도움이 없었다면 이 논문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요 후원자인 사랑하는 아내 정정희와 사랑하는 아들 태오, 아들 죽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외에도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5월

나문성

제 I 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린그렌(A. Lindgren)은 교회행정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¹고 정의하였다. 또한 교회행정의 목적을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 (Let the church be the church)이라고 하였다.

린그렌의 정의에 의하면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행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바울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 몸에 비유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고 말하며(고전12:27, 엡5:30), 지체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한다(고전12:27~28). 그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지체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게 함으로써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기 위함이다(고전12:25). 따라서 교회행정이란 바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긴밀하게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¹ Alvin J. Lindgren, *Foundations for Purposeful Church Administr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65), 60.

몸의 각 지체는 각각의 지체를 위하기보다는 하나의 몸을 위하여 존재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한다. 각 지체의 기능은 뇌의 기능에 의하여 지시를 받고 활동하듯이 교회 역시 하나의 집약된 목적, 곧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이 필요하다. 우리 몸의 머리, 몸, 손, 발 등 모든 지체들이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도 모두 다 행정적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행정은 교회를 파괴하는 다양한 요소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교회를 파괴하는 요인은 크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과 사설, 곧 많은 이단과 반기독교적 사상들의 공격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공격 받아왔고 앞으로는 소통과 이해라는 명목아래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는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의 공격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인 요인은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와 한 지체의 문제로 인하여 전체가 파괴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내부적 요인이 외부적 요인보다 교회를 파괴하는 매우 주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이다. 교회행정은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함으로 교회를 보호한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

현대교회는 다양한 조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행정을 필요로 한다. 초대 교회 당시의 교회 구조는 성경에 근거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변함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조직과 운영 방법이 변하게 되었고 종교개혁 이후 교회의 구조도 다양하게 변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복잡한 생활 구조는 교회 구조를 점차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목회 방법도 상호유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특별히 현대사회의 전문화와 다양화는 교회 공동체의 구조를 다원화 시켰으며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화된 행정 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²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행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교회 성장과 교회행정에 관한 서적과 논문, 신문, 기타 서적들의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문헌 연구방법에 의한 이론적 접근 방법과 사례조사 연구방법을 통해서 통(通)목회를 위한 체계적 행정과 유기적 행정에 관한 연구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교회행정으로서는 체계적 행정과 유기적 행정을 살펴본다. 교회행정이 교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교회행정의 중요성을 파악해 본다.

둘째, 체계적 행정의 특성을 살펴본다. 현대 교회에 갑자기 찾아오는 교회분쟁에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설정해 본다.

셋째, 체계적 행정과 유기적 행정의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례 연구 방법을 실시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새중앙교회의 사역 내용 중에서 체계적 행정과 유기적 행정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교회 행정의 안전성, 개방성, 편리성, 상호작용이라는 장점을 확장 또는 일반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² 강대화, “한국 교회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1988), 5-6.

넷째, 문헌연구 방법에서 얻은 내용들과 새중앙교회의 사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교회의 통(通) 목회의 미래 지향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술될 것이다.

I 장은 서론으로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를 소개하고, 그 범위는 새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 행정과 유기적 행정에 대해 사례조사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II 장은 교회행정과 통(通)목회의 이론적 고찰이다. 교회행정의 일반적인 설명과 교회행정의 개념을 정리하고, 교회행정 시스템의 성서적, 역사적, 목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교회와 행정의 연관성과 통(通)이란? 통(通)의 요건, 통(通)신학, 통(通)목회의 이해를 통해 교회 목회의 본질과 사명을 밝히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체계적 행정과 유기적 행정의 실행을 통하여 실제적인 체계적 행정과 유기적 행정의 정의 및 필요성과 내용을 진행한다.

IV 장에서는 체계적 행정과 유기적 행정 실행에 따른 통(通) 목회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새중앙교회의 사례와 평가를 통하여 체계적 행정과 유기적 행정이 교회의 통(通) 목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고찰할 것이다.

V 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밝히면서 현대교회에 요구되는 통(通) 목회의 제언으로 본 논문을 마치려 한다.

제 II 장

교회 행정 시스템과 통(通)목회의 이해

교회 행정 시스템의 이해

행정학은 행정(行政)과 학(學)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말이다. 우리가 학문의 개별분야를 가리킬 때 ‘~학(學)’ 이라고 쓰듯이 학(學)이란 어떤 대상에 관한 학문(學文)을 한 글자로 줄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¹ 그러므로 행정학은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된다. 1887년 윌슨(Woodrow Wilson)이 「행정에 관한 연구(The Study Administration)」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부터 행정학을 독립된 학문분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윌슨은 그의 논문에서 “행정이란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된 공공정책을 적절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 집행하는 관리기술로 정치와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연구도 정치학과 달라야 한다.”² 고 촉구함으로써 행정학이 독자성을 갖는 학문분야로 성립하는데 주춧돌의 역할을 했다.³ 그 후, 굿노우(Frank J. Goodnow)와 윌로우비(W. F. Willoughby), 그리고 화이트(Leonard D. White)와 같은 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행정학은 비로소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정학이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써 독립된 학문분야로 자리 잡은 역사가 아주 짧기 때문에 행정학은 처음부터 독자적인

¹ 조동일, *우리 학문의 길* (서울: 지식산업사, 1993), 162.

² Woodrow Wilson,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Public Affairs Press, 1995), 13-14.

³ 백완기, *행정학(학)* (서울: 박영사, 1993), 51.

이론체계나 연구방법을 가지고 생겨났기보다는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뒤섞여서 생겨난 아주 독특한 학문분야(a unique discipline)로 출발하였다.⁴ 이는 행정학에 관한 저명한 저술들의 대부분이 정치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들이 썼다는 사실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따라서 행정은 대단히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행정 역시 교회의 전 영역을 포괄하기에, 보다 광범위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행정에 대한 학문적 정의보다는 실천적 정의를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이점이 일반행정학과 교회행정학이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생 학문인 교회행정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행정학은 크게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에 대한 교회행정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섭리라는 측면에서 광의의 교회행정학을 나누어 볼 수 있다.

교회 행정의 필요성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시는 동시에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 뜻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교회는 바로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교회행정은 그것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행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⁴ Samuel J. Bernstein & Patrick O' Hara, *Public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People, and Public Polic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9), 6.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 하신 일과 그분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을 증거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교육하고 다양한 신앙훈련을 한다. 훈련된 이들 중에 리더를 선별하고 그들을 통해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사역을 진행해 나간다. 이 모든 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교회행정이다.

다시 말해 교회행정은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행정은 단순히 교회라는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교회행정은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를 밝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학문인 동시에 선교이다. 이것은 교회행정의 근간이 반드시 신학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通 목회의 관점에서 교회행정을 두 가지 측면, 곧 체계적 행정과 유기적 행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교회 행정 시스템의 성서적 이해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각각 세워 작은 일을 재판하도록 하고 돕게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교회 행정의 시작이다.

구약적 이해

구약성경을 보면 족장시대부터 이미 장로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어로 장로는 ‘자켄’이라고 하며, 이 단어는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늙은 중에서 유례된 단어이다(창 24:2). 모세의 출애굽 이후, 장로는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관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행정가의 의미로 발전했다(출 18:12).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세워 총회를 소집하고 장로의회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한 사람이다(출 4:29). 사무엘 시대로 접어들면서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사무엘에게 나아와 왕을 요구할 정도로 사회적 신분과 발언권이 강화되었다(삼상 8:4).⁵

모세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날 이드로는 사위인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출애굽기 18장 16절을 보면 이 때 모세가 행했던 일 처리는 바로 재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⁶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 모세의 일을 감당하도록 제안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민수기 11장에

⁵ 백기출, “21세기 교회의 효율적인 행정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순복음대학원대학교, 2011), 14.

⁶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등장하는데 14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한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장로 70명을 뽑아 지도자로 세울 것을 명하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칠십 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장로의회(the Presbytery)나 대의정치(Representative Government)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출애굽기 18장 13-27절속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교회 행정의 전형이나 모델을 발견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을 수 없다. 밤낮으로 송사에 시달리는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오십 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천 부장을 세워 재판의 문제를 전담하도록 이야기하고 모세가 이를 실행한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행정의 원시적인 모델의 명확한 근거이다. 문제의 대두, 원인의 분석, 처방과 대안제시, 조직과 실행, 평가와 점검의 현대교회 행정의 전형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 할 것이다.

솔로몬

남유다 2대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시대의 행정제도를 기본바탕으로 하면서 정치, 행정, 세제 등의 조직을 확대, 개편을 통해 체계화 시켰고 왕권을 중앙에 집중시킴으로 내부 결속을 다졌고 모아진 힘을 바탕으로 대외에 그 힘을 확장 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공평과 공의, 그리고 공익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체계적인 통치체제에 기인한다. 솔로몬은 과거 열두 지파의 구분을 고려하는

동시에, 시대적 요청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열두 행정구역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로 말미암아 각 지방에서 공평하게 세금과 물자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제사장 중심의 통치체계이다. 솔로몬의 행정편제의 명단에는 제사장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아도니아의 반란을 제압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모시는데 앞장섰던 브나야는 군대를 관장하고, 제사장 사독은 대를 이어 대제사장직을 맡았으며, 나단의 두 아들은 참모로 솔로몬 왕을 보좌한다. 여기에서 제사장 사독은 백성이 패역할 때나 나라가 위태로울 때 오직 자신의 사명만을 묵묵히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약적 이해

신약성경에 행정의 증거는 수없이 많다. 교회가 조직화되기 전, 교회 행정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의 직분자를 세우는 사건이다. 우선 회당제도부터 살펴보면 회당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시작된 제도이다. 회당의 운영자는 장로회였으며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주였으나 다스림의 기능도 있었다. 다시 말해 회당은 신앙과 생활의 중심지였기에 아주 중요한 행정 조직체였다고 할 수 있다.

회당 이후 나타난 것이 산헤드린(Sanhedrin) 공의회 이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로 조직된 산헤드린은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7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종교는 물론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을 총괄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 행정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사도행전 6장이다.

사도행전 6장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늘어가면서 교회 안에 발생한

구제의 문제를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워 담당하게 함으로써 해결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도와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제도가 행정적으로 정립된 것이다.

바울의 서신서에도 행정적인 요소들이 등장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 몸의 지체를 비유로 교회에 대해 설명하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몸의 지체 중 그 어느 것 하나 쓸데없는 부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회 안에 고통을 받고 아픈 지체가 있다면 함께 고통과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돌봐 주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과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돌볼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안의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고전12:26~28)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4:11~12)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그것을 바탕으로 세워진 다양한 직분들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행정적인 노력들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직접 행하신 행정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보이신 행정들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본질과 범위를 보여준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하시기 위함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막1:38)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막3:14)

누가복음 10장에도 우리는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12명의 제자 이외 70명을 따로 뽑아서 두 명씩 짝을 지워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신다. 이유는 앞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동일하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하라.” (눅10:10~11)

바울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린도후서 8장 이하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거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했던 예를 들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풍성한 헌금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왜냐하면 이 일을 계기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형제애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즉, 바울은 적절 한 시기에 편지와 함께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 고린도 교인들이 약속한 연보를 잘 준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후 9:5).

바울은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각각의 능력과 은사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적재적소에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에는 리더십이 강한 디도를 파견했고,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교회에는 디모테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지도자를 파견하고,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교회에는 아볼로 같은 지도자를 파견하여 교회를 균형 있고 은혜롭게 성장하도록 하였다.⁷ 바울이 보다 효율적인 전도와 목회를 위하여 행정적인 체계와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고린도전서에는 행정적 결론을 이끌어 내는 또 다른 좋은 예가 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된 문제는 바로 교인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두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분열된 것이다.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송사(6장), 우상 제물의 취식(8장), 그리고 공적 예배시의 질서에 관한 것이었다(11장). 모든 문제는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본질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바울은 교회의 분쟁,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우상 제물의 식사, 예배의 질서 등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목회적 입장에서 교훈을 제시하고 목회자의 심정으로 권면과 진리를 제시하면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교회를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 행정 시스템의 역사적 이해

교회행정 원리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그 존재들의 원리를 이론화 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행정 원리를 살펴보면 첫째, 사랑이다.⁸ 죄를 지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인간을 구속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을 내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⁷ 오성균, “사도 바울의 리더십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대학원, 2010), 174.

⁸ 백기출, “21세기 교회의 효율적인 행정 연구,” 17.

둘째, 섬김이다.⁹ 이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종은 아래에서 노를 짓는다는 뜻이다. 이 말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도 간에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평화이다. 이는 원수를 사랑하며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근거를 둔다(마 5:44). 예수께서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라도 용서하라는 가르침에서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마 18:22).

초대교회

신약의 초대교회에는 교회 행정을 사도들이 주도하였다. 점차적으로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성례전을 집행하고 교구를 설정하고 대단위적 행정이 이루어졌다. 4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성례전을 거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독이 지방교회에 권한을 양도해 주면서 지방 교회의 장로가 사제가 되었다. 당시 감독은 그가 속한 교구의 교구장이 임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제단과 평신도의 두 가지 계급이 생기게 되었다.

이후 교회 조직의 발전은 점차적으로 그 시대의 경험과 필요에 의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특별히 교회행정을 담당하는 계급은 처음에는 세 가지 계급으로 시작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다섯 가지 계급으로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조직체의 모습을 지닌 행정체로 변해갔다. 또한 역사적으로 서방교회는 예언자와 사도들의 전승에 기초하여 교회행정을 했다면 동방교회는 교회의 지도자

⁹ 오성균, “사도 바울의 리더십 연구,” 189.

이그나티우스(Ignatius), 클레멘트(Clement),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크리소스톰(Chrysostom), 거짓 디노이시우스 (Pseudo-Dinoysius) 등의 교훈에 기초한
교회행정을 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교회

중세교회의 교회행정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세시대 군주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14c 단테는 군주정치를 표방하면서 군주는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5~16c 에라스무스와 토마스 모어는 기독교사상에 근거한 휴머니즘을
택함으로 교회행정에 휴머니즘의 사상을 불어넣었다.

종교개혁시기에는 국가와 교회를 구별하면서도 세속정부의 권위의 필요성과
질서를 중요시했기에 법의 복종 아래에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교회의 종교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촉진하였다. 특별히 칼빈주의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폭군과의 투쟁 속에서 기초 사상으로 수용되면서 근대
민주주의 및 자유주의 사상을 낳았으며 토마스 홉스는 세속법의 기초가 자연법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근대적 교회행정의 성격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등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다.¹⁰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행정의 특징은 구약시대
제사장 제도와 연계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교회행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구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회행정의 전통이 발생 되었고,
근대적 교회행정은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교회자체의 전통과 실천 그 시대의 필요에

¹⁰ 백기출, “21세기 교회의 효율적인 행정 연구,” 18.

의해서 발전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리를 강조하는 것이었으나 이를 세속 사회의 정치적인 힘을 이용 하면서 큰 권력이 된 것이다. 그 결과 교황은 국가와 종교의 지배권을 거머쥔 지배하는 권력형 목회자가 된 것이다.

중세 개혁시대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16세기 유럽, 로마, 가톨릭 교계 내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체제 전반에 걸쳐 일어난 개혁 운동이다. 그리고 이 운동은 교회행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의 행정의 부패상을 고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이다.¹¹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행정은 신자들을 딱딱한 사무적인 입장에서 대하던 것이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섬세하고 따뜻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가 미사와 고해제도를 통해 신자들을 지배한 결과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의식에 치중한 거대한 기관화된 조직체로 전락한 것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의식에 갇힌 하나님이 아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였다. 쾰링거는 중세교회를 거짓 목회로 규정하였고 칼빈은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교회행정을 네 가지 직분 즉 설교자, 교사, 장로, 집사로 규정하였다.

¹¹ 이금숙, “현대 교회행정의 리더십 발전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13.

근대교회

근대교회는 영국교회와 미국교회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영국교회는 Puritan 운동을 통해 시작되었다.¹² Puritan 운동은 영국교회 내에서 복음주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일어난 신앙운동으로 로마 가톨릭의 제도 또는 의식 등 일체를 배척하고 칼빈주의에 입각한 투철한 개혁주의를 주장하였다. 그 당시 교회의 행정은 목사의 설교와 교사 그리고 목회자인 역할에서 그 기능을 감당하였는데 많은 목사들은 이런 목회적인 역할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설교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Puritan 운동은 설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새로운 신앙의 틀을 제시했다. 이들의 끊임없이 노력이 기독교인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교회는 교회행정에 있어서 목회자는 왕의 대사로서의 자격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는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시키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미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포기하고 부흥회를 통해 경건의 모임을 강조하면서 부흥사로서 성공하려 하였다. 때문에 당시 미국교회는 부흥회를 통하여 신앙이 성숙되어 갔으며 그 결과 교회행정은 개교회 중심으로 점차 변화되어갔다. 따라서 교회행정 역시 카리스마적인 목회자, 곧 부흥사를 중심으로 하는 경건한 구제와 선교사적인 교회로 전환되었다.

현대교회

시대적으로 현대교회의 출발은 교회 내적인 요인보다는 교회 외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즉 사회가 점차 합리적인 사고체제로 접어들면서 교회행정도 합리적으로

¹² 백기출, “21세기 교회의 효율적인 행정 연구,” 19-20.

변화되었다. 그래서 현대교회 행정을 시대와 함께하는 목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교회 목회의 행정적인 모습은 크게 12가지로 분류되는데 바로 복음주의, 자유주의, 근본주의, 사회개혁주의, 도시교회주의, 농촌교회주의, 평신도주의, 여자주의, 유색인종 주의, 이민주의, 기관주의, 선교주의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교회행정의 다양한 분류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역할의 분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다양한 역할의 분화는 2가지의 뚜렷한 방향을 지향한다.¹³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근거하여 “가서 만민을 가르치라” 이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근거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라는 입장이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과 뚜렷하게 구분되기에 이 두 가지 방향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교회의 행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다.

교회 행정 시스템의 목회적 이해

교회행정은 목회적 관점에서 성도들의 달란트가 잘 활용되고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잘 세우고 조직하고 관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회복

교회 행정은 일반 행정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섬김’ 과 ‘소통’ 이다. 일반 행정은 인간 사회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존재한

¹³ Ibid., 20.

다면, 교회 행정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섬김과 소통은 곧 교회의 회복과 성장을 가져온다. 행정이란 단어와 회복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반된 관계를 가진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교회행정이 바로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회복이란 병들어 있는 것을 치료하는 과정만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만들어가는 과정 또한 회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행정은 어떠한 모습을 찾아가게 하며, 또 만들어지게 하는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성도의 사역이 회복되도록 섬기는 교회행정

교회행정은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교적 정리, 세례식, 훈련수료 등 다양한 사역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성도들이 스스로 사역에 헌신하고 자신의 은사를 찾아 그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사역의 자리와 연결점을 만들어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교회행정이다.

투명함이 회복되도록 섬기는 교회행정

현대 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투명성’이다. 이는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모든 부분들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 교역자를 청빙하는 기준, 교회 내 행사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들 가운데 명확한 행정적 기준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면 성도들간의 큰 상처와 다툼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회

가 분열되는 일들이 생겨난다. 교회는 재정적인 분명한 기준과 사역들에 대한 명확한 분류 및 프로세스를 구축했을 때, 투명성을 통하여 성도와 사회는 교회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 교회행정은 투명함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소통이 회복되도록 연결하는 교회행정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회 안의 사역들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그에 따른 많은 사역부서들이 만들어진다. 처음 교회가 개척될 때는 모두가 하나의 사역을 감당하며 소통에 있어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지만, 교회가 성장하여 사역이 전문화되고 다양해 지면서 소통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사역이 세분화 되면 성도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역만을 생각하면서 부서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연합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한 교회의 비전과 담임목사의 사역방향이 각 부서에 전달되어 교회 내 모든 부서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원활한 소통 체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고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서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교회행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회행정은 가시적인 사역은 아니다. 교회행정은 눈에 보이는 성장만을 이루어 왔던 교회들의 토대를 견고하게 회복시키고, 그 위에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치유

치유와 관련된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치유사역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질병 그리고 고통 당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구원을 준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사61:1, 2),”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9:35).”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을 통해 보고 듣고 체험한 치유 현장의 사역을 기록으로 남겼다.

현대인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환경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다. 특별히 발달된 과학문명은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인간들의 마음은 더 강박하고 공격적으로 변화였고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서로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이처럼 상처입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은 교회이다. 교회 안에서 많은 치유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에 대한 비밀보장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치유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회 행정은 이러한 목회적 사례를 잘 정리해서 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

통(通)목회의 이해

통(通)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 “통하다, 꿰뚫다, 두루 미치다, 탈 없이 통하다, 두루 알다, 환히 비치다, 통하게 하다, 건다, 보급되다, 오가다, 왕래하다, 알리다, 전하다, 통보하다.의 뜻을 가지며 주로 ‘통달’, ‘소통’, ‘화통’, ‘정보통’ 등과 같이 다른 한자어와 함께 단어를 이루어 사용되고, 그 외에는 서로

뜻이 맞거나 생각이 같을 때를 표현하는 말로 ‘통하다’로 사용된다.”¹⁴ 하지만 조병호는 통(通)의 의미를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로써, 하나의 사유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접근 경로를 섭렵하는 새로운 인식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앞서 설명했듯이 일반적으로 통(通)이라는 글자는 ‘통하다’라는 말로 표현될 뿐이지만, 통(通)은 통(通)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외자의 단어로써 ‘통(通)으로 보다’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통(通)이란 서로 다른 영역이나 방식, 관점이나 입장을 우선 그 각각으로 이해하고, 서로 다른 차이 속에서 연결성과 관계성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식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을 발생시키는 사고방식이다.

통(通)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의 속성을 더욱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하나의 경로나 하나의 방법으로 파악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인식할 때 보다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인식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생긴다. 즉, 통(通)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 것으로 대상을 인식할 때 가장 통찰력 있게 또한 오해 없이 정확하고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통의 방법론에서 핵심은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관점에 따라 대상의 인식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한 가지 관점으로 편중되거나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통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 따라 도출된 인식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¹⁴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2), 44.

통(通)의 요건

지금까지 우리는 통(通)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통(通)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한 것만으로 통(通)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킨 것은 아니다. 통(通)이 하나의 대상을 더욱 온전히 인식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로와 관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통(通)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¹⁵ 이 질문은 통의 방법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다.

조병호는 “통(通)의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한다. 첫 번째는, 대상을 인식하는 다양한 경로와 관점들 간에 상보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A를 눈으로 보다’, ‘A를 귀로 듣다’, ‘A의 맛을 보다’ 등의 방식을 두루 섭렵하는 것은 통(通)의 방식이다. 그러나 ‘A를 눈으로 보다’와 ‘A의 색깔’이라고 했을 때에는, A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만족하고 있지만 서로 상보적인 관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결국 같거나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通)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요건은 유기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A’가 동물이라고 할 경우에, ‘A가 기쁠 때의 행동유형’과 ‘A의 천적 가운데 몸집이 가장 작은 동물’은 A에 대한 정보이므로 상보적일 수는 있으나 유기성이 결여된 것으로, ‘통(通)’이라고 할 수 없다. ‘A가 기쁠 때의 행동유형’, ‘A가 슬플 때의 행동유형’, ‘A가 화날 때의 행동유형’ 등과 같이 ‘A’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관점들 사이에 유기성이 있어야 한다.

¹⁵ Ibid., 47.

세 번째 요건은 계열성이다. 예를 들어 ‘A’가 사람일 경우 ‘개인적 특성’, ‘사회적 특성’ 등의 관점은 ‘통(通)’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의 하위 계열에 해당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는 ‘통(通)’이라고 부를 수 없다. 개인적 특성의 하위 계열에 해당하는 ‘내면적 특성’과 ‘외면적 특성’이라고 했을 때, 둘을 통(通)으로 볼 수는 있으나 외면적 특성의 하위 계열에 해당하는 ‘키’와 ‘외면적 특성’과는 통(通)으로 볼 수 없다. 즉, 통(通)이란 같은 위계를 지닌 항목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¹⁶

통(通)신학

조병호는 “통(通)신학이란 ‘통(通)’과 ‘통(通)으로 보다’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읽기 방식에 적용시킨 기독교 경전해석의 방법론이라고 이야기 한다. 즉, 성경의 기록들을 좀 더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로와 방식, 다양한 관점을 배타적이 아니라 종합적인 입장에서 아우르는 것을 일컫는다. 성경을 조명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진리를 더욱 온전히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통(通)신학인 것이다. 이때 종합적인 입장에서 수렴할 수 있는 관점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보성, 유기성, 계열성이라는 통(通)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경을 분석적이고 부분적으로 보는 방식과 성경을 총체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는 방식을 통(通)으로 볼 수 있다.”¹⁷ 역사적으로 볼 때 전자의 방식은 서양에서, 후자의 방식은 동양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通)의 사고방식을 적용하여 통시적(通時; diachronic) 성경읽기와

¹⁶ Ibid., 47-48.

¹⁷ Ibid., 48.

공시적(共時; synchronic) 성경읽기를 통합하여 성경을 새롭게 조명하는 통(通)신학의 방법론도 있다. 조병호가 말하는 공시(共時)란 동일한 시간 영역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가로축을 의미하고, 통시(通時)란 연속되는 시간 흐름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세로축을 의미한다.”¹⁸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슬퍼했던 예레미야를 볼 때, 비슷한 무렵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인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을 함께 보는 것이 공시적 성경읽기이며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았던 다윗과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를 함께 보는 것이 통시적 성경읽기 방법이다. 예레미야를 통신학적으로 접근하다는 것은 이 모두를 상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병호는 부분적 성경읽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 즉 공시적 성경읽기와 통시적 성경읽기가 통(通)으로 묶여야 함을 주장한다.

공시적 성경읽기와 통시적 성경읽기의 접목과 함께 조병호는 경전 중심의 성경읽기 방식과 심정 중심의 성경읽기 방식 또한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서양은 그동안 경전 중심의 성경읽기를 통하여 성경을 이성적으로 접근했다면 동양은 성경을 감정에 초점에 맞추어 읽어왔다고 할 수 있다. 통(通)신학이란 성경해석에 있어 이러한 동서양의 두 가지 방법론이 상보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통(通)신학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체적 사고’와 ‘부분적 사고’ 혹은 ‘통합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조화 뿐만 아니라, 부분과 전체는 물론, 관계와 계약, 지식과 실천 등의 양립하는 두 영역을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조화와 균형, 공존과 발전의

¹⁸ Ibid., 49.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다.

“이처럼 통(通)이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써, ‘대상이 지닌 본질적인 속성을 다양한 관점으로 두루 섭렵하여 파악하는 것’, ‘여러 대상 간의 핵심적 상보성을 찾아 총체적인 입장에서 유기적으로 보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할 때, 통(通)신학은 서로 다른 방식의 성경읽기 방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론을 균형적 입장에서 견지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을 수 있는 공통된 소망이 ‘성경과 통(通)하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通)하다’ 라고 볼 때 이때의 통(通)은 일반적인 의미의 통(通)이다. 하지만 성경과 통(通)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과 통(通)하고자 한다면, 통(通)의 방식으로써 성경의 뜻을 살펴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通)으로 볼 때,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대 상황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진리와 본뜻을 헤아려 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을 통(通)으로 볼 때, 시대 현실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경을 잘라 보던 수많은 기독교 내의 분열과 분리가 극복되고, 하나의 기준인 성경 안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通)신학을 통하여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분쟁과 갈등을 넘어서서 진리를 바탕으로 동서양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 추구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성경의 깊이와 넓이에 가장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인 통(通)신학은 동서양의 교회들이 이념,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외형적 차이를 넘어서서 동반자적 관계로 통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이자 공통분모가 될 것이다.”¹⁹

¹⁹ Ibid., 50-51.

통(通)목회

‘통通 목회’란? 전 세대가 모든 예배를 비롯해 전도와 교육, 훈련과 양육 등을 삶 속에 흡수하고 적용하여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목회를 이야기 한다. 사람은 자신이 익숙하게 살아온 대로 생활하려고 한다. 신앙과 영성도 익숙한 것에 따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특정한 것에 치우칠 수 있다. 이것은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역자에게도 자신의 사역에서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요소만을 성도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양육 받은 성도의 영성은 어딘가 나약한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통 교회에서 전문사역자라고 하면 그 분야에 정통한 자를 말하지만 진정한 전문사역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자신의 사역이 교회 전 영역에서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행2:17)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17절의 말씀처럼 세대 간에 동시에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특정세대에게만 성령을 부어 주시지 않는다. 전 세대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 주신다. 다만 그 현상이 세대 간에 다르게 곧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 꿈을 꾸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전 세대 걸쳐 친히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전 세대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통(通)목회의 사례로 새중앙교회의 사역을 살펴본다. 아래 그림에서 세로축은 전 세대를, 가로축은 전문사역을 지칭한다.

<표1> 통(通) 목회, 전세대 사역



사역의 가로축에는 전문사역들 즉 통시적 사역들이 있다. 예배, 전도, 훈련, 양육 등으로 구성된 사역들이 가로축에 빼곡히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세로축에는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들, 공시적 세대가 자리를 잡고 있다. 맨 아래에는 교회학교이고 순차적으로 청년공동체 그리고 성인교구가 있고, 여기에 특별히 외국인선교회가 있다. 예배는 교회학교로부터 청년공동체 그리고 성인교구에서 살아 있어야 한다. 역동적인 예배를 통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전 세대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은혜가 넘치게 된다.

중보기도학교는 특정 중보기도자들 만이 받아야 하는 훈련이 아니다. 이 역시 교회에 속한 전 세대가 받아야 하는 훈련이다. 발전도 사역과 전도학교, 그리고 선교 전문 훈련인 새중앙전문인 선교훈련(SMTC), 단기선교학교, 이주민선교학교, 북한선교학교 또한 선교지로 나가기에 지원한 특정 선교사

지망생만이 받는 훈련이 아니라 전 세대가 받아야 하는 훈련이다.

큐티(quiet time)는 전 세대가 매일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 6세 미취학 아동으로부터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또 청년세대인 비전공동체, 마지막으로 성인교구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동일한 말씀으로 묵상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통(通) 목회, 전 세대 사역’은 <표1>과 같이 세로축(공시적)의 전 세대가 가로축(통시적)에 있는 전문사역을 모두 경험하는 목회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 목회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첫째, 세로축의 전 세대가 함께하고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교구에서는 교회학교를 위해 인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아웃리치도 전 세대가 함께 같은 장소에서 봉사와 전도 행사를 경험해 보는 것이다.

대예배 속에 묻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학교 학생과 청년 공동체 자녀가 있을 수

있다. 그들을 교회학교와 청년예배로 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가로축의

전문사역에 대해 고민해보자. 교회의 전문사역 기관과 부서들은 문을 열고 목양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학교와 비전공동체 그리고 교구와 협력하고 전 세대 구성원을

필요한 사역으로 안내하며 연결시키는 노력해야 한다. 전문사역 기관은 전 세대가

움직이는 사역에 100% 전심을 다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성도의 은사를 계발하여 그의 영적인 정체성을 열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은사 계발은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여

자신의 사명과 접목하여 자신감 있는 사역자로 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를

‘통(通)’으로, ‘전 세대’로 보고 선교를 ‘통(通)’으로, ‘전 세대’로 보고

아웃리치를 ‘통(通)’으로, ‘전 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통(通)사역이

교회 전체에 적용되려면 그 누구보다 교회의 영적 리더십인 교사, 구역장, 교구장,

장로, 전도사 그리고 목사로 구성된 지도자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제 III 장

체계적 행정과 유기적 행정의 실행

체계적 행정의 실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함께 움직이는 인적단체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교회분쟁은 교회 지체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며, 교회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때문에 교회는 교인들의 합의하에 정관을 제정한다면 이런 갈등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재열은 교회 정관법으로 이해한 교회를 “둘 이상의 개인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신앙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한 계속적 단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으로 연합한 계속적 단체관계의 법률적 모습은 정관의 형태로 표출되고, 정관은 계속적 활동에 관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교회정관이란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으로서 교회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권력의 형태를 정한 근본규칙이며 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상호간의 규범이다. 때문에 정관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관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누가, 어떤 위반내용을, 어떤 정관 규정에 의하여,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 그 해결방안을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¹

교회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모두 교인 총회의 권한에 귀속되며 교회내부의 권한 분배는 교인 총회결의 내지 정관을 통해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내부의 권한 분배는 인적 단체인 교회의 중요한 요인이며 표지가 된다.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 정관이다. 정관이나 규약 등의 내부규정은 그것이 국가의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자치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구성원을 구속하며 법원도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회가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정관은 필수적이며, 모든 교회는 정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재산 취득 시 세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종교단체등록과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번호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정관이 법인 아닌 사단인 사원총회에 해당된 교인총회에서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당회가 정관을 만들어 법률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다.²

장로교회의 교리적, 정치적 체계를 완성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1536년부터 1538년까지 제네바시 개혁의 의도를 좌절 당하자, 제네바 시를 떠나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3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마르틴 부처(Martin Bucer)의 장로직에 대한 직제론을 접하고 교회 조직 관련 법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완성시켰다.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그는 제네바 ‘교회 법규(1541)’를 만들었고 이 법은 1542년 칼빈이 세운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설립하게 된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³

¹ 소재열, *교회정관법 총칙* (서울: 도서출판 말씀사역, 2013), 4.

² Ibid., 4-5.

³ Ibid., 50.

그는 서론에서 질서가 잡히기를 당부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여겼는 바, 이제 이 일은 어떤 생활 규율과 태도가 있어 각자의 직무를 이해케 하지 않고는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신 대로의 영적 통치 규범을 실행하고 우리 안에 보존하기에 좋은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선하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도시의 영토에서 다음과 같은 교회 규칙을 따르고 간직하도록 정하고 세웠다. 이는 이 규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얻어진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⁴

이를 통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교회는 반드시 생활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규율은 각자의 직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교회법(1541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복음에 근거한 영적 통치 규범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에 선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1541년)은 목회를 성경과 신학에 대한 접목에서 온 결정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⁵ 이처럼 교회는 법률적 정관제정 등 교회법을 통해 교회 스스로 교회 본래의 영역을 지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체계적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적 행정의 필요성

민법에서 정의하는 교회 정관은 “민법은 단체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고 특히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 1차적으로 정관의 구속력을 인정한다. 다만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민법의 원칙과 민법규정에 따라 단체의 사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적용한다. 민법에서는 사단법인 구성원의 정관작성의 자유를 인정하며, 정관은

⁴ Ibid., 51.

⁵ Ibid., 51.

단체의 내부적 규범으로서 조직 내부법에 해당된다. 때문에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은 단체설립의사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구성원의 단체설립의사는 설립 이후에도 정관의 변경을 통해서 표시되며 그 밖의 사원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을 통해서도 표현된다. 사단법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결합된 인적 단체로서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설립등기에 있어서 정관은 필수적이다. 여기서 정관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법인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서면을 말하며(민법 제40조) 기명·서명 날인이 없는 정관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는 행위인 ‘정관의 작성’이 곧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⁶ 그렇다고 설립행위와 정관작성이 같은 것은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설립행위 안에 정관작성이 포함되는 것이다.

정관은 단체의 기본규범으로 단체 활동의 기본 근거가 되므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는 사단의 기본규칙도 민법 제27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관이라고 함으로 교회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법적인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인적 단체로서 형태를 갖추고 대표의 방법, 총회 운영, 재산 관리, 결의방법, 기타 중요한 사항들이 확정되어 정관이라는 문서의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교회의 법률행위

교회에서 성도들 간 의견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다툼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결과적으로

⁶ Ibid., 246.

교회분열로 이어져왔다. 교회 내부 문제에 대해 세상의 법이 개입된 것은 내부에서 완만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비롯되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다. 현대 교회의 특징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과 문제들을 교회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분쟁해결의 최후수단인 국가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분쟁은 결국 교회가 세상을 옳은 길로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쟁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결국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만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교회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독립성과 교회의 자치운명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합리적인 절차로 제정한 교회 정관이 필요하다.⁷ 또한 교회재산의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교회 정관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로 등록을 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발부 받아야 하는데 등록할 때 반드시 교회정관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헌금한 성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려면 반드시 교회의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고유 번호증이 필요하기에 정관이 필요하다.⁸ 이처럼 교회가 법률행위를 위해서는 정관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결국 모든 교회는 반드시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교회 정관이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는 몇 명이 모여서 교회 정관을 만들어 법률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다. 교회는 종교단체로서의 교회 고유의 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해 성문의 규약이 반드시 필요한 단체이다. “교회 정관이란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으로서 교회의 조직, 교회의

⁷ Ibid., 35-38.

⁸ Ibid., 247.

활동, 교회의 권력 형태를 정한 기본규칙이라 할 수 있다. 규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운영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상호간의 규범이며,”⁹ 정관은 교회의 법률관계를 계속적으로 구속한다.

교회내 분쟁과 갈등의 해결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이 지교회의 정관을 심사하거나 관리 또는 감독하는 교단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단에서 지교회 정관에 대해 심사를 했던 경우가 없었던 이유는 정관의 제정은 지교회의 고유권한이므로 교단이 이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교회가 교단의 헌법을 지교회 자치규범으로 정하고 지교회를 운영 및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지교회 정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바른 정관 작성과 정관 준수, 집행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인들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확히 하는 일은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정관은 교회 내에서 특정 개인의 독재와 월권을 방지해 준다. 예를 들면 교회의 분쟁 가운데 하나인 담임목사의 독재와 당회 장로의 월권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독재는 개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켜서 지배하는 비민주적인 정치를 말한다. 교회정치 가운데 장로회 정치는 ‘민주적 정치’ 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민주적’ 이라는 말은 ‘민주주의’ 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둔 성경적 체도에 따른 민주적 정치를 말한다. 민주적 정치나 민주적 권력제도란 교회의 운영규범이 특정 직분자나 기관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⁹ Ibid., 248.

원리에 따른 자치규범인 정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¹⁰

체계적 행정의 내용

체계적 행정을 넓은 의미로는 교회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좁은 의미로는 정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관이란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민법 제42조, 제44조, 제45조)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민법 제40조, 제43조)을 가리킨다. 즉 2인 이상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날인하여야 한다(제40조). 이 서면을 정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본규칙(민법 제42조, 제44조, 제45조) 자체를 정관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같은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정관은 무효이다(제40조). 이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정관 기재사항에는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사항,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 그 시기나 사유 등이다. 그 밖의 사항도 사단의 근본규칙으로 정하여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이것을 정관의 임의적 기재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가진다.”¹¹

또한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요건인 단체의 고유 목적,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규약에는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인 다수결의 원칙,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¹⁰ Ibid., 248.

¹¹ Ibid., 250-251.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의 정관은 작성에 참여한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교인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술한 대로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규범이라 할 수 있다. 민법 제276조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는 규정과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교회는 신앙단체로서의 성격 외에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부의 문제일지라도 그 실질이 사단으로서의 특질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단체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 일반 법인이 아닌 특수 법인으로서의 법인 아닌 사단의 근본규칙도 ‘정관’ 내지 ‘규약’ 이라고 부른다.”¹²

유기적 행정의 실행

교회행정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체적 존재 의미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 본질이 유기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 (고전12:27), “하나님의 상속자” (롬8:14~17),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성전” (엡2:21~22) 등과 같은 표현들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결국 교회가 다양한 조직과 구조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단순한 조직으로 운영하는 교회 행정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낳아 결국 교회가 갖고 있는

¹² Ibid., 251.

근본적인 사명과 목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교회행정을 정부와 기업체에서 적용하는 행정원리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반드시 생명력을 가진 유기적 교회 행정을 해야 한다. 사회봉사단체들이나 NGO와 같은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를 위한 행정원리들을 교회에서 취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체들이 상호 유기적 관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연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 비영리단체의 행정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과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 간에 유기적 교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다루고 진행해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¹³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생명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 받음으로써 온전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행정은 각 지체들 간의 상호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류가 선행된 후 이루어져야 한다.¹⁴

둘째,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그 공동체의 사명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모든 교회 행정의 내용들과 행위들은 언제나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과 목적이 맞는지 항상 검토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 달성을

¹³ 박영철, *유기적 교회행정*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15), 4-5.

¹⁴ Ibid., 5.

위한 수단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이신 주님의 통치를 우선해서는 안 된다.¹⁵ 다시 말해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들 간에 생명력을 주고받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명령을 실행하는데 모든 지체들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게 하는 것이 유기적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기적 행정의 필요성

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세 가지 요소들로는 리더십, 조직체 자체, 그리고 그 조직체가 지향하는 과업이 있다. 이것들은 행정이 이루어지는 상황(context)을 만들고 조성하며, 행정의 방향이나 방법 등에 매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작용한다.¹⁶

공동체를 주도하는 지도자

행정의 특성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지도자이다. 즉 어떤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조직체의 리더가 되었는가가 행정적 상황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이다.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리더십을 가진 리더인가, 아니면 자유방임형 리더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주적 리더인가는 그 조직체의 행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리더가 조직체의 구성원을 피동적인 존재로 보고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자로 인식하는 것과, 반대로 리더가 구성원들을 섬기는 자로서 구성원 개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끌어내어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섬기게 함으로 조직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바람직한 행정환경 조성가로서의 리더는 그 조직체의 성장과 발전에 결정적 요소이다. 세워진

¹⁵ Ibid., 6.

¹⁶ Ibid., 26.

리더에 따라 조직체가 성장할 수도 있는 반면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어진 외부 요소들이 동일하다면 리더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된다.

예를 들면,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해가다가 어떤 이유로든 목회자가 바뀌게 되면 모든 교회의 상황들이 그 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의 동력을 잃고 위축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한 그 반대로 교회가 정체된 지 오래 되었지만 새 목회자가 부임하면서 전혀 다른 분위기 가운데 활력을 얻고 생동감 넘치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듯 행정가로서의 리더는 교회행정 상황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탁월한 리더는 자신의 인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비전 창출을 통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과 구성원들로 하여금 목표실현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동기부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수립, 체계적인 조직정비, 원활한 소통과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등 행정적 과업을 유능하게 수행하는 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성원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서로의 달란트를 발휘하도록 권면하여 유기체(organism)로서의 교회와 조직체(organization)로서의 교회를 은혜롭게 협력하여 성장 발전시키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 리더로서 필요로 하는 최상의 행정기술을 개발하는 일에도 집중해야 한다.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 받고 그 능력으로 교회 구성원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또한 사역자들의 달란트를 파악하고 개발하여 사역의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¹⁷

조직체 또는 그룹

¹⁷ Ibid., 26-28.

행정적 상황을 조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그룹이다. 어떻게 교회가 조직되었는가는 그 교회 구성원의 다양한 잠재력과 특성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조직은 교회 구성원들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규칙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셨기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는 그 직분에 맞는 다양한 조직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 사역자 팀, 각종 위원회와 선교회, 제자훈련과 전문훈련, 교회학교와 교육연구소, 청년부와 교구, 이 외에도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복지기관 등이 그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교회 내 소그룹 활성화이다. 사실상 교인들이 대그룹 안에서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기란 여러 가지 상황 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소그룹 안에서는 교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진정한 영적 교제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써 한 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긴밀한 교제 경험에 기초하여 교회전체가 연합함으로써 교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주어진 과업들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되며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의 과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된다.

상황 자체

행정적 상황을 형성하는 또 다른 요소는 교회가 지니고 있는 비전과 그 비전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조직체이다. 비전이란 지역교회가 위치한 물리적 장소에 따라, 또는 교회설립 이념에 따라 그 교회가 갖는 독특한 과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교들이 밀집한 지역의 교회 경우, 캠퍼스 또는 젊은이들을 위한 학원 사역이

주요 비전일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교회들은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의 교회와는 다른 종류의 비전을 갖게 되기도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조직체의 목표, 즉 교회의 목표 그 자체가 상황이라는 말이다. 또한 그러한 목표 또는 비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회는 비전, 목표, 전략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곧 조직체의 상황이라는 요소를 구성한다.

교회의 비전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삶을 살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이상의 요소들이 부단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¹⁸

유기적 행정의 내용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삶을 지향하는 조직체이다.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떤 조직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지닌다. 앙스트롬(Engstrom)과 데이톤(Dayton)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타 조직체들과 구별되는 교회의 신성하고 고차원적인 삶의 지향성을 실체화 하는 교회 행정의 독특한 측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한다.¹⁹

교회는 조직체인 동시에 유기체이다

¹⁸ Ibid., 29.

¹⁹ Engstrom and Dayton, *The Art of Management for Christian Leaders* (Waco, TX: Word, 1979), 15-18.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영적 생명력을 갖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체이다. 유기체는 서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 지체들은 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유기체이다. 또한 동시에 교회는 비전, 목표, 전략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인사, 예산, 평가 등 모든 조직체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 과업을 수행하는 조직체인 것이다. 교회의 이러한 두 가지 유기체적인 측면과 조직체적인 측면 양쪽 모두를 균형 있게 추진하면서 어느 한 쪽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²⁰

교회는 공동체 중심인 동시에 개인 중심이다

공동체 중심이라는 말은 교회가 개인의 필요보다 공동체의 요구사항과 역할 그리고 목표달성에 역점을 두고 각 지체들이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기대하는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중심이라는 말은 조직체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들에게 더 강조점을 두고 교회 공동체가 각 지체들에게 관심과 기능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성향은 상호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교회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머리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온 몸의 각 지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들은 상호 생명을 주고받는 유기체적 관계에 있다. 이것은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가 거의 한 몸처럼 유기적 관계를 작동시키듯 각 교회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머리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²⁰ 박영철, *유기적 교회행정*, 30.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두 성향이 상호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몸으로서의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이 가능해진다.²¹

교회의 중심은 누구인가?

교회의 본질은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부활·승천 이후 그 사역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가 사람들을 세우고 돕고 섬길 수 있으려면 필연적으로 세심하게 마련된 프로그램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본질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인 것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 활동들이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양자 모두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양자 모두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는 언제나 모든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이 교회의 각 지체를 위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프로그램과 각 지체 모두가 조화롭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²²

교회의 의사 결정 구조는?

중앙집권체제란 최고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말하며, 지방분권체제란 의사결정권한이 조직체 각각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그리스도라는 점에서는 교회는 철저히 중앙집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²¹ Ibid., 30-31.

²² Ibid., 31.

성도 각 개개인의 은사와 봉사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지방분권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역시 교회 공동체가 유기체로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와 직결된다. 오늘날 교회들의 경우 안타깝게도 유기체보다는 조직체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개인중심보다는 기관중심의 성격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사람보다는 오히려 프로그램 자체에 치중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주도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이 끝난 뒤 오히려 지쳐버리고 그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 전체의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 담임목사 또는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에 집중되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성향도 나타나는데 책임과 권한이 보다 하부조직이나 전체 교회에게 분여 되는 일을 통해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자발성을 가지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연합하여 교회의 과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성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라도 다음과 같은 부등식 기호를 사용하여 그 강조점을 뒀으로써 조직체로서의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왼쪽은 현상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강조점의 이동이 필요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표2> 조직체와 유기체 비교

조직체 > 유기체	⇨	조직체 < 유기체
기관 중심 > 개인 중심	⇨	기관 중심 < 개인 중심
프로그램 중심 > 사람 중심	⇨	프로그램 중심 < 사람 중심
중앙집권 체제 > 지방분권 체제	⇨	중앙집권 체제 < 지방분권 체제 ²³

²³ Ibid., 31-32.

제 IV 장

체계적 행정과 유기적 행정 실행에 따른 통(通)목회에 미치는 영향

새중앙교회의 사례

체계적 행정의 사례

일반 행정은 본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 안전기능이며, 특정국가 사회의 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왔다.¹ 이를 교회에 접목해 보면, 교회행정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안전기능과 함께 교회의 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체계적인 교회행정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양 및 전문사역들이 톱니바퀴와 같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듯이 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일관성과 연계성, 지속성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 행정의 기능을 새중앙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통(通)목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새중앙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으로서 교회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교회 운영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정관을 교인 총회인 공동의회 의결을 통해 재 제정하였다.

¹ 조은식, “기독교의 교회행정에 관한 연구: 사도바울의 교회행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1994), 4.

일관성 기능

체계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회행정에서의 체계도 일정한 원리, 즉 교회의 비전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교회 전체가 통(通)으로 비전 가운데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체계적인 교회행정의 일관성은 건축설계도에 비유할 수 있다. 건축에 있어서 설계도는 건물이 온전히 계획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 만약 건축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으려 한다면, 계획한대로 온전히 건물이 세워지기도 어려울뿐더러 상당한 시간과 물자가 들어갈 것이다. 체계적인 교회행정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세워진 교회가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교회의 목양과 전문사역들이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체계적인 교회행정의 일관성 기능이다. 가장 큰 예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비전에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세운 교회의 정관이 일관성의 기능을 감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새중앙교회 정관의 전문을 보면 교회의 정체성과 지도 이념과 원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성경적 복음의 역사적 전통과 계승을 위한 사명에 빛나는 우리 새중앙교회는 신·구약 성경 및 사도적 신앙과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전통과 이념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한 복음전도의 사명에 입각하여, 사랑과 섬김, 봉사으로써 교회의 지체된 교인들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모든 악행의 폐습과 비진리와 불법을 타파하며,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교회운영의 규칙과 교회정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으로 교회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양심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1983년 4월 10일 박중식목사께서 개척 설립하여 이제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 의하여 재 제정한다.²

연계성 기능

연계성의 기능은 교회 전체가 하나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능과 함께 지역교회와 세계교회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퍼즐에 비유한다면, 각 퍼즐 조각조각이 교회의 부서들, 혹은 지역교회와 세계교회들이라면, 교회행정은 그 퍼즐들이 자신의 위치와 다른 퍼즐모양에 맞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퍼즐 판으로 비유할 수 있다. 각 부서들이 연합하는데 있어서 서로의 그림이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 그림에 따라 어떠한 모양으로 연계되어야 하는지를 가이드하며 실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감당한다. 또한 교회가 하나 됨을 넘어 지역과 세계의 교회들을 섬기고, 또 같은 비전을 품은 교회를 찾고, 협력하며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도 감당한다. 새중앙교회 정관의 목적을 보면 교회의 연계성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본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교회정치 및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 예배, 복음증거, 교육, 성도의 교제, 기도, 봉사, 그리고 선교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교회의 문화적 및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의무와 교회 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교회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원활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³

² 새중앙교회 정관 시행세칙, 4.

³ Ibid., 4.

지속성 기능

일관성 있는 교회행정, 연계성 있는 교회행정을 잘 구성하고 진행하여도 지속성이 없다면, 이 모든 기능은 무의미하다. 교회행정은 이 모든 기능이 지속되도록 하는 기능을 함께 감당한다. 대부분 교회는 절기적인 사역 이외의 많은 사역들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역들이 자료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 되는 경우가 교회 내에 많기 때문에 이전의 자료가 없어 사역을 다시금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행정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역의 지속성을 강화시킨다. 새중앙교회의 사역 체계를 예로 들면, 모든 사역은 사역계획서, 체크리스트, 예산안, 기안, 행사결과보고서의 순서로 전 과정을 자료화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추후 사역 때에 좀 더 발전된, 그리고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속성의 기능은 교회를 보호한다. 조금 더 깊이 본다면 교회행정의 일관성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을 잡고, 지속성은 이 기준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구조 또는 체계가 어떻게 보면 구속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그 구조와 체계가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체계적인 교회행정은 교회 내 비전 및 모든 사역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다. 의결정족수와 기관의 직무 및 권한 그리고 회의록에서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정관변경을 제외한 공동의회의 일반결의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최하며,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 외에는 투표자수 과반수로 의결 한다.
2. 장로, 집사, 권사의 투표는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담임목사 청빙청원은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무흠 본회 회원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4.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공동의회 일반결의 정족수로 한다.
5. 본 정관개정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회원(입교인, 세례교인) 과반수 출석과 투표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6. 정관 제정 및 변경시 서면 위임한 교인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결의권은 당회장(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⁴

제31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1. 교인의 신앙과 행위지도 및 성례식 관장
2. 예배 주관 및 소속기관과 단체사업 및 재정감독
3. 교적부 작성 및 관리(세례, 입교, 유아세례, 학습)
4. 장로, 집사, 권사 임직
5. 각종 헌금에 대한 교육 및 수집방안 수립
6. 노회 총대 선정 및 청원서, 보고서 작성
7. 범죄한 교인에 대한 권징
8. 교회재산(동·부동산) 관리
9. 교역자와 직원인선 및 업무 배정
10. 서리집사, 교구장, 구역장, 권찰 임명
11. 교회 기본 운영계획 및 수립집행 감독
12. 공동의회와 제직회에서 의결된 재정 집행에 관한 협의
13. 사무국 지도 감독
14. 부속기관의 지도 감독
15.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관리 및 차입 및 담보 제공
16. 법인 설립을 결정한다. ⁵

유기적 행정의 사례

교회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점에서 교회행정은 이 유기체로서의 본질적 성격에 걸 맞는 조직과 행정을 강조하고 실현하기 위해 교회공동체 구성원

⁴ Ibid., 8.

⁵ Ibid., 9-10.

각자가 서로에게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유기적 교회행정을 통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유기적 교회행정은 유연성, 전문성, 상호의존성, 창조성으로 기능을 정리할 수 있다. 새중앙교회는 교회적인 큰 행사를 각각의 TFT(Task Force Team)를 통해 유기적 행정으로 진행한다.

유연성 기능

유기적 행정은 유연성의 큰 장점을 나타낸다. TFT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각각의 은사에 따라 자유롭게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TFT조직은 프로젝트에 따라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고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면 조직을 해산할 수 있다. 이 조직은 업무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기 때문에 업무의 다양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TFT조직은 조직 구성원이 업무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구성원 간에 상호 협력하게 함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새중앙교회는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선교영성축제를 TFT조직을 구성하여 유연성 높이는 유기적 행정을 실행하였다.

각 분야별 행사 실행 조직을 구성함

운영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 ○○○장로
- 부위원장 : ○○○장로
- 기획위원 : ○○○목사
- 자문위원 : ○○○선교사
- 총괄간사 : ○○○목사(부:○○○간사)

실행조직(안)

- 홈커밍 프로그램 담당 : ○○○전도사(부:○○○권사)
- 개관식 프로그램 담당 : ○○○목사(부:○○○집사)
- 선교사 튜닝 프로그램 담당 : ○○○목사(부:○○○간사)
- 선교 DNA 프로그램 담당 : ○○○목사(부:○○○강도사)
- 회복프로그램 담당 : ○○○집사(부:○○○집사)
- 차세대 컨퍼런스 프로그램 담당 : ○○○선교사(부:○○○전도사)
- 다문화(음식) 프로그램 담당 : ○○○집사(부:○○○전도사)

공연 축제 프로그램 담당 : ○○○전도사(부:○○○전도사)

의전 프로그램 담당 : ○○○집사(부:○○○집사)

홍보(기록) 프로그램 담당 : ○○○전도사(부:○○○간사)

전문성 기능

유기적 행정은 기존 직위 중심의 조직구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 능력의 약점을 보완하여 조직을 은사 중심 구조로 구성함으로써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직위 중심의 조직구조는 능력 또는 은사와 상관없이 조직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지식, 능력, 이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업무의 해결 능력과, 창조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은사 중심 조직구조는 은사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절한 사람을 적합한 팀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은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은사중심의 조직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이 있는 구성원을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질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일정: 6/18(목)~6/28(주일), 10박 11일

행사 목적

홈커밍 행사와 선교센터 개관 그리고 새로운 선교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축제 초청대상

파송선교사와 협력 선교사 그리고 선교센터와 관계된 선교사를 중심으로 확대 전체 프로그램 재 조정

홈커밍 행사를 통한 파송 선교사들에게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 제공

선교사들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선교 정책을 수립하는 축제 새중앙 선교비전인 5대양 6대주 선교 허브센터와 연계된 축제

상호의존성 기능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유연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면 상호의존성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다. 상호의존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업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호작용의 관계가 중시되는 조직 구성에 상호작용의 결여

는 업무 해결, 업무 진행, 업무의 분배 등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유기적 행정을 통해 유연성, 전문성을 가진 조직 구성 안에는 상호의존성이 높게 나타난다. 업무에 맞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상호작용함으로써 상호의존성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업무의 책임을 공유하게 되고 업무가 공동의 목표가 되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이로 인해 업무의 능률은 높아진다. 유기적 행정은 이러한 상호의존성이 높은 조직을 구성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표3> 전세대 아웃리치 팀 역할 분담표

역 할	준비과정	사역과정
교역자	-팀운영의 전반을 조율 -팀별모임에 참석하여 사역 방향을 도우며, 참가자들을 교육하고 관리한다.	-사역 현장에서 총 책임자로 현장을 지도하며 책임 -기도회 인도(교역자/선교팀장)
선교팀장	-각 임원진과 팀원들을 구축하여 사역 실시(사역지에 맞는 조직 세팅) -정기 팀별모임을 통해 기도회 및 사역 준비, 교제의 시간 -교회/기관 담당자와 연락하여 지속적인 사역 계획 협의 -팀원 내 필요한 내용들을 감찰하고, 승인된 사역 추진 -각 팀의 회의는 팀장이 주관하며 팀 별로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팀장회 의에 보고	-팀을 대표하고 주요 의사결정과 조율
총 무	-팀원을 연락하며 관리 -선교팀장과 함께 사역을 수행 -각 팀의 사역을 실무적으로 지원	-팀 사역과 행사의 준비, 실무를 담당 -설비 및 현장 필요 점검 -선교팀장 업무 보조
서 기	-아웃리치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 하여 제출 ① 팀 조직도 및 명단 - 사역 전 ② 답사 보고서 - 사역 전 ③ 사역계획서(일정표/예산) - 사역 전 ④ 사역보고서(전체&일일) - 사역 후 ⑤ 예산보고서 - 사역 후 회계와 협의 ⑥ 간증문 - 사역 후 소감문 제출 -각 보고서는 취합후 팀장에게 일괄 제출 한다.	-일일 사역보고서 기록 -기타 팀 상황이나, 관찰기록 작성

회 계	-지출은 예산계획에 의거하여 사용하며, 계획에 없던 지출은 선교팀장과 협의 -팀 재정관리(회비 관리, 사역비 관리) -지출된 영수증, 각 증명 자료 보관 -팀 회계장부를 기록하며, 회계 보고 -사역이 끝난 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일괄 제출한다(영수증)	-현장 재정 지출 및 영수증 관리 (회계장부)
미디어	-사진 촬영, 미디어 아카데미 필참 -사진과 영상 자료를 수집하여 CD로 제작하여 팀장에게 전달	-미디어 기록을 규정을 따라 촬영 및 보관 -사역 현장 사진을 촬영 -일일 사역 스캐치 -사역 후 사진과, 기록 및 제출 한다
중보기도	-팀별 릴레이 기도, 중보기도제목, 기도 후원자 명단관리	-중보기도
키피 (집/타입)	-공통의 짐을 관리 -필요한 기본 약품을 준비 및 건강체크	-현장훈련 일정에 차질 없도록 시간을 알리고, 필요시 조율
음 식	-방문하는 교회/기관과 식사 협의	-식사로 인해 사역시간이 피해되지 않도록 준비
차 량	-팀 인원을 체크하여 차량을 미리 준비	-팀원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도움

창조성 기능

유기적 행정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업무의 창조성 효과로 나타낸다. 다양한 업무,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구성원,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등은 자연스럽게 업무의 창조성 효과를 나타낸다. 창조성에 있어 다양성은 중요한 부분이다. 유기적 행정은 각 분야에서 그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업무 처리를 넘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창조적인 진행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창조적인 업무의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창조성은 공동체를 안주하지 않고 성장시키며 침체되지 않고 활발하게 하고, 익숙함에서 새로움으로 성장하게 한다. 이러한 창조성은 유기적 행정을 통해 나타난다.

창조적 사역 프로세스

교구 리더십 회의(TF 팀장 및 지역별 임원 구성, 일정, 지역, 교회 또는 기관 선정, 신청/홍보계획)

지역별 교회 답사

지역별 홍보/신청 접수: 신청자 인원 확인, 가능한 사역 확인

사역 계획서(예산) 작성, 매뉴얼 제작, 교회 내 협력팀 네트워크 구축
 참가자 전체 모임(아웃리치 개념 소개, 위기관리, 팀 구성) 및 기도회
 참가자 전도훈련, 섬김 아카데미 진행
 전체 기도회 후 팀별 사역 준비
 지역별 현장 아웃리치 시작
 결과 보고(사역보고, 회계보고, 사진/영상자료, 간증문 사역 후 2주일 이내 제출)
 연말 교구 아웃리치 헌신예배 or 강평회: 감동적인 사진/영상 종합, 간증, 발표회

체계적 행정과 유기적 행정에 대한 평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언제든지 서로의 이해관계로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교회 각 지체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좋은 예가 바로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한 교회정관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행정적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다. 새중앙교회의 체계적 행정의 사례에서 보면 새중앙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으로서 교회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교회 운영 및 사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정관을 교인 총회인 공동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하였다. 즉 교회 정관의 제정은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회원들이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를 통하여 작성할 때만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관을 통한 행정은 국가와 사회 안에서 교회의 법률적 행위를 통하여 교회와 교인들의 권리를 보호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교회 행정에 있어서 유기적 행정이라 함은 교회의 본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영적 생명력을 갖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적 연합체이기에 서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 지체들은 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유기체이다. 새중앙교회에서는 TFT를 통하여 각종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기적 행정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새중앙교회의 유기적 행정의 사례에서 보면 새중앙교회는 세계선교영성축제 행사를 유기적 행정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외 선교사 45명을 초청하고 4,000명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선교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전교인이 참여하는 전세대 아웃리치 행사 또한 유기적 행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특별히 유기적 행정은 조직체를 주도하는 책임자와 교회를 이루는 조직의 구성, 그리고 교회가 당연한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은혜롭게 사역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세계선교영성축제 결과

개관식 및 커팅식팀: 세계 선교의 허브역할을 감당하는 새중앙 선교센터의 개관을 알리며 하나님께 선교센터 개관 감사예배를 드리고 기념 커팅식과 외부인사 축하 영성 메시지 그리고 데이비드 게리슨 박사의 “세계선교의 상황과 한국교회의 역할” 주제로 기조 강연이 진행되었다.

의전팀: 세계선교영성축제를 위해 입국하는 선교사의 공항 픽업 시 감동의 시간을 연출하였으며, “콩나물 해장국”으로 한국의 음식을 통해 오랜 시간 비행에서 오는 고단함을 달랠고, 선교관 도착 후 선교센터 스태프들의 환영식 등 협력의전을 통해 또 한번의 감동의 시간을 연출하고 개관식 행사에 다른 팀과 협력하여 전체적인 행사에 의전 지원으로 성공적인 지원 하였다.

MK캠프: 세계선교영성축제 기간 동안 선교사 자녀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예배, 마음의 다림줄, 샌드아트, 만들기, 뮤지컬, 인사동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특별히 다음세대훈련원과 징검다리식 진행을 통해 스태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 참여하는 자녀들도 영적으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선교사 워크숍: 각 주제에 따른 소그룹 형태의 자유 토론을 통해 선교 현장의 살아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고, 새중앙 교회의 중장기 선교 전략과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와 향후 새중앙교회의 선교 패러다임 구축과 선교 백서의 데이터 뱅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비즈니스 선교팀: 선교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육신의 회복과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별히 교구와의 만남을 통해 자주 교체할 수 없던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 시간을 통해 성도들에게는 선교 사역에 대해 이해하고 도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선교사님들께는 지치고 외로운 마음을 위로 받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문화 음식축제: 다양한 특색의 선교지 국가의 음식을 함께 만들고 먹고 즐기는 화합의 장을 통해 선교지의 타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세계선교영성축제에 모두가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선교회 성도들과 교구, 성도들 간의 음식으로 하나 되고 선교지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변 이웃 주민들까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선교사 힐링 캠프팀: 세계선교영성축제를 통해 들어오신 파송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선교사를 위한 부부 행복 프로그램을 새중앙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하였으며, 선교사님들에게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려 다시 선교지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담임목사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새중앙교회의 선교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야외 공연팀: 세계선교영성축제를 다문화축제로 만들기 위해 야외공연을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특별히 출연하는 모든 스텝들이 다 새중앙교회 청년들로 구성하였으며 여러 장르의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버라이어티한 무대를 연출할 수 있었다.

광고팀: 새중앙선교센터 개관과 세계선교영성축제를 국 내외 알리기 위한 다양한 광고를 제작하였으며 특별히 VIP 초청을 위한 초청장 제작과 세계선교영성축제 전체 행사를 위한 브로슈어 제작 하였다.

제 V 장

요약 및 결론

연구의 요약

성서적으로 볼 때 교회행정학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 천, 백, 오십, 십부장을 세워 교회 안에 발생한 분쟁들을 재판했던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바벨론 포로시기를 거치면서 생겨난 회당과 산헤드린 공의회는 종교는 물론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을 총괄하였고 신약시대 교회가 세워지고 다양한 직분이 생겨나면서 교회 행정이 체계를 잡아갔고 초대교회 이후로는 점차 조직화되고 세분화 되었다.

무엇보다도 교회행정은 교회가 속한 시대 속에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초대교회는 점점 성장해가는 교회 안에서 성례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두고 행정이 발전해 갔고 중세교회의 행정은 군주정치를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세울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근대교회는 대 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선교사적 교회로 발전해갔기에 행정 역시 그를 돕는 방향으로 발전해 갔으며 현대교회는 급변한 사회 속에서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교회행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회행정은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토록 중요한 교회행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체계적 행정이고 다른 하나는 유기적 행정이다.

교회행정에 있어서 체계적 행정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좋은 예가 바로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한 교회정관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행정적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관을 통한 행정은 국가와 사회 안에서 교회의 법률적 행위를 통하여 교회와 교인들의 권리를 보호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교회행정에 있어서 유기적 행정이라 함은 교회의 본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 곧 성도들의 모임이기에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적 연합체이기에 교회를 움직이는 행정 역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의 상호작용과 교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새중앙교회에서 TFT를 통하여 각종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기적 행정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세계선교영성축제, 전세대 아웃리치). 특별히 유기적 행정은 조직체를 주도하는 책임자와 교회를 이루는 조직의 구성, 그리고 교회가 당연한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연구의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분을 믿는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마16:18)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엡1:22, 3:10). 그렇기에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곳이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엡1:23). 그리고 그 분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은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고전12:27). 때문에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연합체이며 이 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다(엡2:22).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시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만물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 교회행정은 바로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즉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체계적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교회 행정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출18장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의하여 재판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출18:16).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해 모든 재판이 행해진다(레19:35-37, 신17:9-11, 겔44:24, 사33:22, 스7:25) 만약 이것을 교회행정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따라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적인 요소들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이 옳으며 그것은 곧 교회행정에 있어서 체계적 행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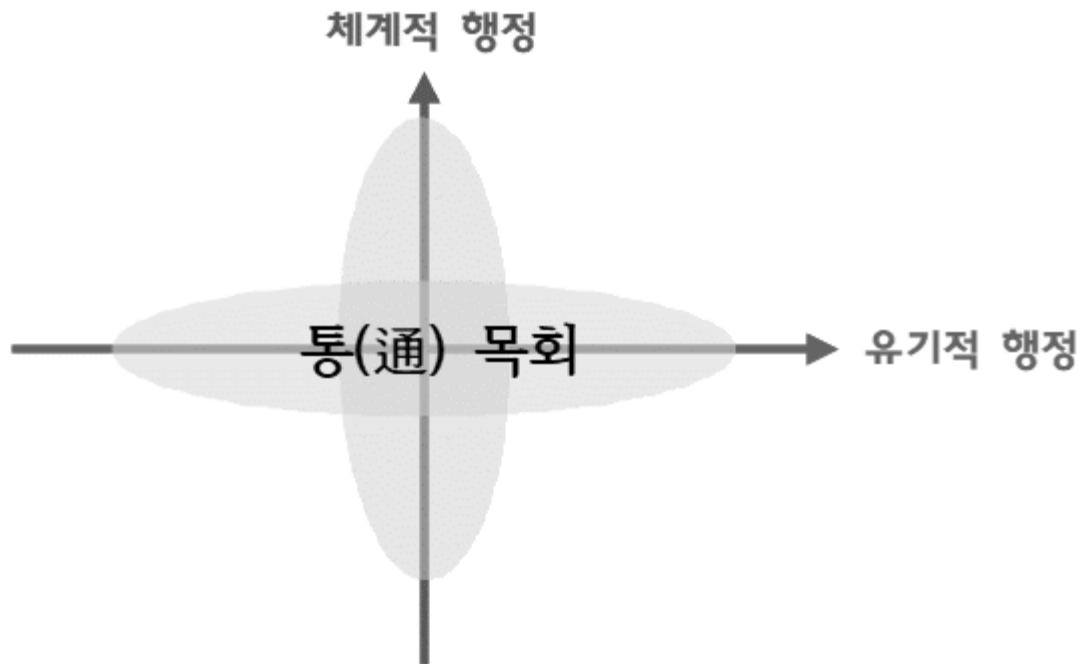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모든 것이 법적인 측면으로만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전8장에 기록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며 그것 들에게 결코

절해서는 안 된다고 십계명을 통해 명령하신다(신5:8-9). 때문에 왕정시대 부패한 종교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우상을 깨뜨리고 불사르는 것이었다(왕상15:13, 왕하11:18).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며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던(출32:1-6)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하여 삼천 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출32:27-28). 따라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율법에서는 결코 허락될 수 없다. 하지만 사도바울은 이 문제를 지식이 아닌 덕, 곧 사랑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리하여 내려진 결론이 바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대하는 나의 행동이 형제를 실족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의 이러한 결론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연합체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고전12:26절에서 바울이 천명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행정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교류, 협력하는 유기적 행정이 필요하다.

결국 교회는 법률적 측면에서 행해지는 체계적 행정과 교회를 이루는 다양한 성도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행해지는 유기적 행정이 사안에 맞게 적절하고도 균형 있게 시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필자는 교회행정에 있어서 체계적 행정과 유기적 행정을 앞서 언급한 통신학, 통목회의 관점에서 이해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4> 통(通) 목회, 체계적-유기적 행정



가로축은 유기적 행정, 그리고 세로축은 체계적 행정이 자리한다. 이는 교회행정이 유기적 행정과 체계적 행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시행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줄 것이다. 즉 가로축에는 교회 안에서 처리되어야 할 다양한 행정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물론 모든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을 총 망라한다. 교회는 일차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유기적 행정적인 측면, 곧 관련된 부서와 기관은 물론 성도들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조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불미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차원, 곧 체계적 행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룰 것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또한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를 이루어 갈 것이다.

부록1.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교회 정관(안)

전 문

성경적 복음의 역사적 전통과 계승을 위한 사명에 빛나는 우리 새중앙교회는
 신·구약 성경 및 사도적 신앙과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전통과 이념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한 복음전도의 사명에 입각하여, 사랑과 섬김,
 봉사으로써 교회의 지체된 교인들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모든 악행의 폐습과
 비진리와 불법을 타파하며,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교회운영의 규칙과 교회정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으로 교회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양심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1983년 4월 10일 박중식목사께서 개척 설립하여
 이제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 의하여 재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교회」(이하 ‘본 교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소속과 헌법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에 소속한다.
2. 본 교회의 독립성과 본 정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정관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한다.

제3조 교회설립 및 본 정관 목적

1. 본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교회정치 및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 예배, 복음증거, 교육, 성도의 교제, 기도, 봉사, 그리고 선교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교회의 문화적 및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의무와 교회 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교회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원활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평촌동)에 둔다.

제5조 조직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치리 및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규정한 행정처리를 위한 당회, 재정수납을 위한 제직회를 두고,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 2 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6조 교인의 구분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된 후 예배참석과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2. 학습교인 -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만 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3. 세례교인 - 학습받은 후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위하여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4. 유아세례교인 - 만 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5. 입교인 -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거친 후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인으로 공포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제7조 교인의 권리의무의 취득과 상실

1.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또는 상실된다.
2. 교인은 공동의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 교인이라 함은 세례교인과 입교인을 의미한다.
3. 본인이 본 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예배시간에 소개한 후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 단 당회의 결의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교인의 사용·수익권

1. 본 교회 교인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충유물을 사용·수익한다.
2.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를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제9조 교인의 권리

1. 입교인과 세례교인은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입교인과 세례교인은 본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모든 교인은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4. 당회는 교인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5. 모든 교인은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정한 치리기관에 의하여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교인의 의무

1. 모든 교인은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십일조,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교인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의무가 있다.
3. 모든 교인은 침해받지 아니할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교인의 권리 제한

1. 모든 교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수하며,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정관에 따라 소송 중에 있는 원, 피고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보류할 수 있다.
4. 소송의 피고가 무죄 판결로 확정될 경우 소송의 원고는 일정기간 교인의 권리를 당회의 결의로 제한 할 수 있다.

제 3 장 직 원

제12조 직원의 구분

1. 향존직 - 본 교회는 향존(恒存)할 직원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둔다.
2. 임시직 - 본 교회는 안수 없는 종신직으로 권사와 당회가 임명한 명예권사와 서리남녀집사를 둔다.
3.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4. 유급직원 - 행정사무직원을 둔다.

제13조 직원의 임기

1. 향존직 - 향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
2. 임시직 - 권사는 향존직의 임기와 동일하며, 서리남녀집사는 1년으로 한다.
3.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유급직원 - 유급직원의 임기는 인사관련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14조 직원의 직무

1. 목사 - 노회로부터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2. 장로 - 목사와 협력하여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3. 집사 -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구제직무를 수행하며, 재정을 수납지출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서리집사는 당회의 임명으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4. 임시직 - 권사는 목사와 당회의 지도 아래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권면한다.
5. 부교역자 -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의회 ·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의장이 언권을 부여할 경우 언권행사를 할 수 있다.
6. 유급직원 - 행정사무직원은 별도의 인사규정으로 제정한다.

제15조 직원의 은퇴

1. 목사(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20년 동안 시무 후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과 노회의 원로목사 승인으로 원로목사가 된다.
2. 장로(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3. 집사(은퇴집사) - 집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집사가 된다.
4. 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 혹은 명예권사가 된다.
5. 서리집사는 항존직 정년 연령 이후에는 명예집사가 된다.

제16조 직원의 이명(이래)자 취임규정

1. 장로 - 이명(이래) 무임장로 중 당회의 결의로 언권회원인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후 2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다.
2. 집사 - 이명(이래) 무임집사 중 당회의 결의로 2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로 취임할 수 있다.
3. 권사 -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권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2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세칙

1. 교회직원(유급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청빙, 선거,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은 당회결의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선교사 파송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 4 장 공동의회

제18조 조직

1.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둔다.

2. 회원은 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된 흠(권징치리) 없는 입교인·세례교인으로 만 19세이상으로 한다.
3. 회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가 겸한다.

제19조 소집

1.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정기 공동의회는 년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회계연도 마감 후 1개월내에 개최하며,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후보 혹은 예배시 구두 광고, 기타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①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②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 ③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 ④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3.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보류할지라도 소집청원자는 당회의 결의에 순종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정관변경을 제외한 공동의회 일반결의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최하며,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 외에는 투표자수 과반수로 의결 한다.
2. 장로, 집사, 권사의 투표는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담임목사 청빙청원은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무흠 본회 회원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4.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공동의회 일반결의 정족수로 한다.
5. 본 정관개정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회원(입교인, 세례교인) 과반수 출석과 투표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6. 정관 제정 및 변경시 서면 위임한 교인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결의권은 당회장(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제21조 결의 사항

1. 당회와 제직회의 청원사항
2. 감사보고의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3. 담임목사 청빙청원 및 장로, 집사, 권사 선거
4. 정관의 제정, 개정
5. 교단 및 노회의 탈퇴,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교회합병, 분립
6. 기타 공동의회와 관련된 안건

제22조 특별제한

1. 원로목사, 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2. 당회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시벌은 시벌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회원권이 보류된다.

제23조 재정장부열람

1. 개인이 재정장부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며, 단 필요시에는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개인현금 내역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 특별규정

1. 특별한 사정으로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차기 정기 공동의회 때 결산승인을 채택할 수 있다.
2. 특별한 경우 담임목사는 재정을 선 집행한 후 보고할 수 있다.

제25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4. 정관 제정, 개정의 경우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결의로 선임한 당회원 1인이 간서인이 된다.

제26조 시행세칙

공동의회의 상세한 운영 지침은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 5 장 당 회

제27조 조직

1. 노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본 교회 장로로 구성한다.
2. 원로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3. 당회 서기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4. 당회장은 특별한 경우(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당회장이 당회원 중에서 5인 이상을 선정하여 선처리 후 그 결과를 추후 당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8조 소집

1. 정기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 ①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당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 ③ 상회가 회집을 명할 경우
- ④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이 있을 경우

제2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당회장(담임목사)과 당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당회의 결의는 당회원 투표수 과반수 찬성에 당회장(목사) 결의공포가 있어야 한다.
3. 당회원의 투표수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의 결의공포가 없는 경우는 결의되지 않는다.

제30조 당사자 제척

1. 당회장 본인 문제(위임청원)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당회결의로 당회장이 노회 소속된 목사 1인을 해당회에 한해 대리회장이 되게 한다.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나 출타한 경우도 같다.
2. 당회원 본인 문제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안건 결의 시는 제척된다.

제31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1. 교인의 신앙과 행위지도 및 성례식 관장
2. 예배 주관 및 소속기관과 단체사업 및 재정감독
3. 교적부 작성 및 관리(세례, 입교, 유아세례, 학습)
4. 장로, 집사, 권사 임직
5. 각종 헌금에 대한 교육 및 수집방안 수립
6. 노회 총대 선정 및 청원서, 보고서 작성
7. 범죄한 교인에 대한 권징
8. 교회재산(동·부동산) 관리
9. 교역자와 직원인선 및 업무 배정
10. 서리집사, 교구장, 구역장, 권찰 임명
11. 교회 기본 운영계획 및 수립집행 감독
12. 공동의회와 제직회에서 의결된 재정 집행에 관한 협의

13. 사무국 지도 감독

14. 부속기관의 지도 감독

15.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관리 및 차입 및 담보 제공

16. 법인 설립을 결정한다.

제32조 권징의 정의 및 방법

1.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건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2.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당회는 재판회를 소집하여 소송건을 처리한다.

3. 권징 필요시 당회가 기소위원을 정하여 재판회로 소집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기소위원은 원고가 된다.

4. 당회의 처리권에 불복할 경우, 관련 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관련기관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 없이 상급기관인 노회에 상소 및 소원을 할 경우 교인의 지위가 박탈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 시벌자 공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로회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책벌을 받은 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공고할 수 있다.(단, 이단 시벌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 명부록

1. 학습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및 세례교인 명부(입교 및 세례 년 월 일 기입)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6개월 이상 실종된 교인,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자)

5.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 세례 명부(유아세례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9. 교회 역사

10. 교회재정 장부

제35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당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당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36조 시행세칙

1. 당회의 상세한 운영 지침은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

2. 구역, 교회학교, 남·녀진도회 등의 조직과 운영 지침은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 6 장 제직회

제37조 조직

1. 본 교회 제직회는 장로, 권사와 집사로 구성하며, 서리집사는 당회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

2.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임한다.

제38조 소집

1. 제직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제직회는 필요시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제3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며, 통상적인 사무처리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최하여 처리한다.

제40조 제직회 직무

1. 재정의 수납(收納) 관리
2. 교단 헌법에 규정된 제직회 임무는 당회에 위임한다.
3.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청원 결의

제41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42조 시행세칙

제직회 운영 지침은 필요 시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재정

제43조 재산정의

교인들의 현금,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제44조 재산의 소유 등기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단, 유지재단에 귀속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대표자는 담임목사(당회장)으로 한다.

제45조 관리 보존

재산의 관리·보존행위를 위한 법률행위는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제46조 재산의 처분과 취득

1. 교회 재산의 처분은 당회의 선결의 집행 후 연말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한다.
2. 교회 재산 취득은 당회의 선결의 집행 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47조 법률행위 대행

본회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에게 위임하여 대행케 한다.

제48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9조 재정운영

1.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인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상세한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50조 재정 감사

1.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는 당회원 중에서 3인 이하로 하되 감사위원장은 당회장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당회장이 허락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3.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하며,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서기가 공동의회에 보고 한다.

제51조 시행세칙

재정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8 장 부 칙

제1조 장부보존기간

교회 이외 제3자에 대해 법률행위를 할 경우 재정장부 및 기타 공문서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각 장부의 보존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조 수양관 및 기타 시설

수양관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운영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조 시행세칙 및 규정

본 정관에 명시한 시행세칙, 규정 등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회에서 제정하며 변경은 당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따른다.

단, 새로운 시행세칙,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 시행되어 온 시행세칙 규정에 준한다.

제5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주소지 변경

본 교회 주소지 변경은 정관변경 없이 교회주소가 변경될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변경된 주소로 한다.

제7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 관련 행정사법처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록2. 세계선교영성축제 TFT

(1) 세계선교영성축제 소개

① 일정 : 6/18(목)~6/28(주일), 10박 11일

② 행사 목적 재정의

- 홈커밍 행사와 선교센터 개관 그리고 새로운 선교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선교축제

③ 초청대상

- 파송선교사와 협력 선교사 그리고 선교센터와 관계된 선교사를 중심으로 범위를 확대함

④ 전체 프로그램 재 조정

- 홈커밍 행사를 통한 파송 선교사들에게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 제공
- 선교사들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선교 정책을 수립하는 축제
- 새중앙 선교비전인 5대양 6대주 선교 허브센터와 연계된 축제

⑤ 세계선교영성축제 조직위원회 운영

- 각 분야별 행사 실행 조직을 구성함
- 운영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 ○○○장로
 - 부위원장 : ○○○장로
 - 기획위원 : ○○○목사
 - 자문위원 : ○○○선교사
 - 총괄간사 : ○○○목사(부:○○○간사)
- 실행조직(안)

홈커밍 프로그램 담당 : ○○○전도사(부:○○○권사)

개관식 프로그램 담당 : ○○○목사(부:○○○집사)

선교사 튜닝 프로그램 담당 : ○○○목사(부:○○○간사)

선교 DNA 프로그램 담당 : ○○○목사(부:○○○강도사)

회복프로그램 담당 : ○○○집사(부:○○○집사)

차세대 컨퍼런스 프로그램 담당 : ○○○선교사(부:○○○전도사)

다문화(음식) 프로그램 담당 : ○○○집사(부:○○○전도사)

공연 축제 프로그램 담당 : ○○○전도사(부:○○○전도사)

의전 프로그램 담당 : ○○○집사(부:○○○집사)

홍보(기록) 프로그램 담당 : ○○○전도사(부:○○○간사)

⑥ 일정 안내

〈세계선교영성축제 일정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선교사 입국(의전)	홈커밍 프로그램 (새중앙교회 파송 선교사)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학교예배 설교 및 선교보고 (새중앙교회 파송 선교사)	선교사 튜닝프로그램		개관식 (의전)	워크숍 ①비거주 전문인 선교 매트릭스 ②H/W+S/W 선교 프로그램	다문화, 공연 프로그램	
			워크숍 -선교 마스터 플랜	회복 프로그램 차세대 프로그램(별도)	다문화, 공연 프로그램	
			선교 영성 축제			차세대 프로그램(별도)
주일	월					
대예배 (선교사함께)	선교사출국 (의전)					

※ 6월 22일(월)~6월28(주일)까지 참석 대상은 국내·외 파송 선교사 및 목회자, 신학생 모두 포함

⑦ 향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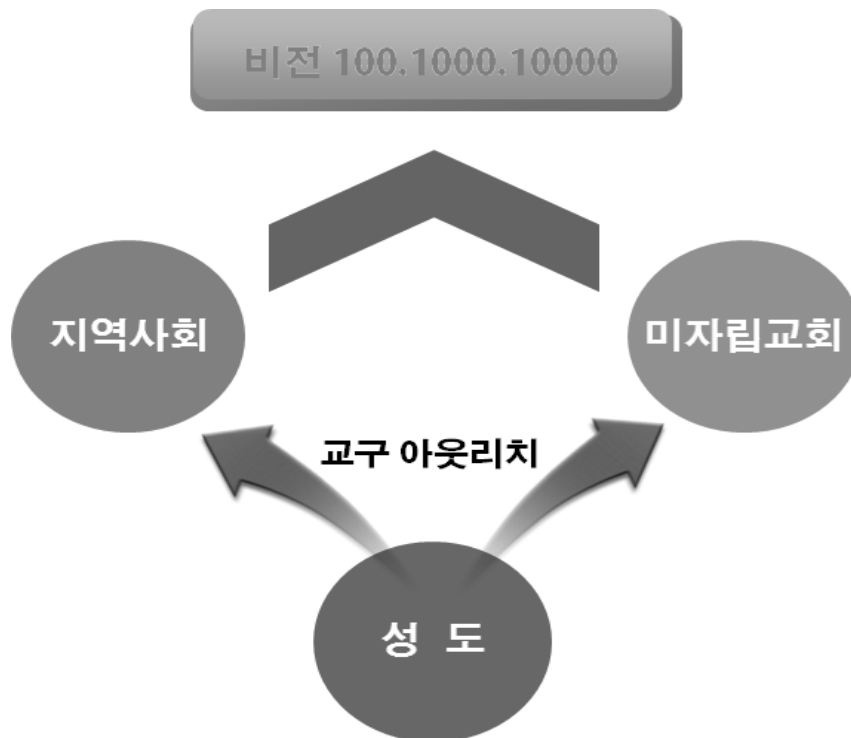
- 각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 제출 : 년 월 일까지

전세대 아웃리치 TFT

교구 아웃리치 사역 소개

- 새중앙교회의 VISION 100.1000.10000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미자립교회를 복음의 열정으로 회복케 하며, 단순히 봉사를 넘어 교회와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최우선 목표를 두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함.
- 지역사회에 복음의 확산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함.
- 국내 교구 아웃리치를 통해 개인/구역/교구/전 교회적으로 전도와 선교가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함.

〈새중앙교회 비전〉



① 사역 특징

미자립교회 사역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자립교회의 부흥을 위해 새중앙교회의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섬기는 전략적 국내선교이다.
- 향후 미자립교회 목회자/평신도들이 교회 전도 및 섬김의 프로그램들을 교육 받아서 적용하게 한다.

교회 중심 사역

- 아웃리치 하는 교회의 필요에 맞게 사역의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여 진행
- 기존 아웃리치의 봉사를 뛰어 넘어 지역교회를 통한 복음전파와 기도에 최우선

② 사역 개요

- 주 제 : “가서 제자 삼으라”
- 일 정 : 년중 1회 또는 여러회 가능
- 장소 선정 : 1일은 충북지역까지, 2일은 전국(제주도 제외) 가능
- 대상 선정 : 교단 신문 광고를 통해 신청 접수 후 대상선정(대신교단 또는 타교단 교회)
- 미자립교회 규모 선정 기준 : 성도 30명 이하

③ 사역 내용

- 사역내용은 교구별 진행팀의 사전탐방 시 각 교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 예) 교회 사역 : 성경학교, 전도, 건물 보수 등

봉사 사역 : 농활, 주민봉사, 마을잔치, 발마사지, 이/미용, 의료봉사 등

④ 사역 타임테이블 표준(안)

- 1일 사역

〈전세대 아웃리치 1일 사역표〉

시 간	내 용	비 고
07:50~08:00	인원점검 / 아웃리치 사역을 위한 기도 / 출발	
08:00~10:00	이 동	
10:00~10:30	도착예배 및 팀별모임(노방전도/축호전도/봉사 등)	
10:30~12:30	팀별 사역1	
12:30~13:30	점심 식사	
13:30~14:00	팀별 오전 사역보고	
14:00~16:30	팀별 사역2	
16:30~17:00	팀별 오후 사역보고	
17:00~17:30	자체 평가 및 기도회	
17:30~19:30	교회 도착	

- 1박 2일 사역

〈전세대 아웃리치 1박 2일 사역표〉

시 간	1일차	2일차
~8:00	•	새벽예배 / 사역 준비
08:10 ~ 09:00	이 동	아침식사
09:10 ~ 10:00		교회 사역 농활 마을 방문
10:10 ~ 11:00	도착예배 및 팀별모임	
11:10 ~ 12:00	팀별 전도사역1	점심식사
12:10 ~ 13:00		
13:10 ~ 14:00	점심식사	교회 사역 농활 마을 방문 중 선택
14:10 ~ 15:00	팀별 오전 사역보고	

	팀별 전도사역2	이 동
15:10 ~ 16:00		
16:10 ~ 17:00	팀별 오후 사역보고	교회 도착 / 해산
17:10 ~ 18:00		
18:10 ~ 19:00	저녁 집회 / 마을잔치 / 나눔 및 기도회 중 선택	.
19:10 ~ 20:00		
20:10 ~ 21:00		
21:10 ~ 22:00		

※ 구체적인 사역 일정은 교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⑤ 사역 프로세스

- 교구 리더십 회의(TF 팀장 및 지역별 임원 구성, 일정, 지역, 교회 또는 기관 선정, 신청/홍보계획)
- 지역별 교회 답사
- 지역별 홍보/신청 접수 : 신청자 인원 확인, 가능한 사역 확인
- 사역 계획서(예산) 작성, 매뉴얼 제작, 교회 내 협력팀 네트워크 구축
- 참가자 전체 모임(아웃리치 개념 소개, 위기관리, 팀 구성) 및 기도회
- 참가자 전도훈련, 섬김 아카데미 진행
- 전체 기도회 후 팀별 사역 준비
- 지역별 현장 아웃리치 시작
- 결과 보고(사역보고, 회계보고, 사진/영상자료, 간증문 사역 후 2주일 이내 제출)
- 연말 교구 아웃리치 헌신예배 or 강평회 : 감동적인 사진/영상 종합, 간증, 발표회

팀 역할 분담 및 규칙

① 팀 역할 분담

〈전세대 아웃리치 팀 역할 분담표〉

역 할	준비과정	사역과정
교역자	-팀운영의 전반을 조율 -팀별모임에 참석하여 사역 방향을 도우며, 참가자들을 교육하고 관리한다.	-사역 현장에서 총 책임자로 현장을 지도하며 책임 -기도회 인도(교역자/선교팀장)
선교팀장	-각 임원진과 팀원들을 구축하여 사역 실시(사역지에 맞는 조직 세팅) -정기 팀별모임을 통해 기도회 및 사역 준비, 교제의 시간 -교회/기관 담당자와 연락하여 지속적인 사역 계획 협의 -팀원 내 필요한 내용들을 감찰하고, 승인된 사역 추진 -각 팀의 회의는 팀장이 주관하며 팀 별로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팀장회 의에 보고	-팀을 대표하고 주요 의사결정과 조율
총 무	-팀원들을 연락하며 관리 -선교팀장과 함께 사역을 수행 -각 팀의 사역을 실무적으로 지원	-팀 사역과 행사의 준비, 실무를 담당 -설비 및 현장 필요 점검 -선교팀장 업무 보조
서 기	-아웃리치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① 팀 조직도 및 명단 - 사역 전 ② 답사 보고서 - 사역 전 ③ 사역계획서(일정표/예산) - 사역 전 ④ 사역보고서(전체&일일) - 사역 후 ⑤ 예산보고서 - 사역 후 회계와 협의 ⑥ 간증문 - 사역 후 소감문 제출 -각보고서는취합후팀장에게일괄제출한다.	-일일 사역보고서 기록 -기타 팀 상황이나, 관찰기록 작성
회 계	-지출은 예산계획에 의거하여 사용하며, 계획에 없던 지출은 선교팀장과 협의 -팀 재정관리(회비 관리, 사역비 관리) -지출된 영수증, 각 증명 자료 보관 -팀 회계장부를 기록하며, 회계 보고 -사역이 끝난 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일괄 제출한다(영수증)	-현장 재정 지출 및 영수증 관리 (회계장부)
미디어	-사진 촬영, 미디어 아카데미 필참 -사진과 영상 자료를 수집하여 CD로 제작하여 팀장에게 전달	-미디어 기록을 규정을 따라 촬영 및 보관 -사역 현장 사진을 촬영 -일일 사역 스캐치 -사역 후 사진과, 기록 및 제출 한다

중보기도	-팀별 릴레이 기도, 중보기도제목,기도 후원자 명단관리	-중보기도
키피 (집/타입)	-공통의 집을 관리 -필요한 기본 약품을 준비 및 건강체크	-현장훈련 일정에 차질 없도록 시간을 알리고, 필요시 조율
음 식	-방문하는 교회/기관과 식사 협의	-식사로 인해 사역시간이 피해되지 않도록 준비
차 량	-팀 인원을 체크하여 차량을 미리 준비	-팀원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도움

② 사역 규칙

- 부정적인 말을 피하고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을 하라
- 재정은 절약과 검소한 삶을 훈련하며, 또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훈련이다. 예산을 기도로 세운 후, 회계 보고서를 지출한다
-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 시간준수는 팀의 하나됨을 이루는 관전이다. 개인행동과 개인사역은 허락되지 않으며, 게으름으로 인해 경건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하루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③ 현장 규칙

-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라
(사역지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 팀장은 정해진 교회에 가서 현지 교역자와 협의하여 숙소를 정리한다
- 교회에 도착 즉시 예배와 감사기도를 한 후 방 배치와 짐정리를 한다
- 교회와 연합하여 전도를 할 때는 그 교회의 전도지를 사용하고 교회 방침에

따른다

- 인사를 잘한다.
- 동역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라. 가장 중요한 전도법이다
- 모든 회의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인사를 한다
- 성숙한 동역자로서 사역을 실시한다
- 새벽기도회, 저녁기도회, 전도 모임 시간은 꼭 지키게 한다
- 팀원들이 항상 사역에 집중하게 하고 팀장은 10분 전에 미리 준비한다
- 말 보다는 먼저 행함이 중요하다
- 선교비의 결산을 공유하라
- 동역교회에 부담을 주지 말고 어떤 약속도 하면 안된다
- 부탁할 때는 크게 하라. 부탁할 때는 가능한 한 명확하고 간략하게 한다
-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 영혼의 상담을 가볍게 여기면 안된다
- 숙소의 지정된 곳의 모든 물품을 개인이나 팀을 위하여 사용할 때,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한 후 사용 하라 (교회의 물건과 물, 전기를 아껴 쓰십시오)
-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한다
- 마무리를 잘하고 떠난 뒷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게 한다

④ 팀 규칙

* 사역기간에 해야 할 일

-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인 교역자와 팀장에게 절대 순종한다.
- 도착 후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을 가져 사역지에서의 안전수칙 및 일정을 숙지한다.

- 사역일정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각 개인의 체력과 음식을 관리한다.
- 지역교회와 목회자를 세우는 목적을 위해 지역주민의 필요를 채워준다..
- 같은 팀원들을 서로를 격려해준다.
- 교회 목회행정, 교역자, 팀장의 연락처를 항상 휴대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재빠르게 팀장이나 팀원에서 알린다.
- 다음날의 활동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유지하라.
- 팀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되 개인 활동은 하지 않는다.
- 교회의 새벽예배에 참석하여 기도하며, 저녁 시간에도 팀별 또 개인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한다.
- 재정은 최대한 절약한다. 필요한 총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에 맞추어 회계가 지출하며 관리한다.
- 공동생활공간은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고 정리정돈을 유지하며, 주거문화를 존중한다.
- 사역을 마친 후 충분한 마무리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용한 숙소는 청소한다.
- 마을잔치를 하는 경우, 이장님과 마을주민에게 술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대신 술보다 훨씬 즐거운 분위기가 되도록 공연을 준비한다. 또는 마을 어르신이 술을 권할 때 지혜롭게 거절한다
- 농사 일을 도울 때는 미리 긴팔, 모자, 장화를 준비하여 반드시 착용한다.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 복음에 빛진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라.
- 가정 방문은 두 세명 씩 짝을 지어서 하며, 한 사람이 대화하고 있으면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중보기도를 한다

* 사역기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 취침시간 이후 모든 개인적인 행동을 금한다.
- 지킬 수 없는 감정적 약속은 하지 말라(다시 오겠다, 연휴 때 찾아뵙겠다, 편지 쓰겠다 등).
- 직접적, 공격적 전도는 삼간다.
- 전도를 거부할 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 지역과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 주민에게 피해가 될 정도로 통성기도 및 찬양을 하지 않는다.
- 지나치게 눈에 띄는 의상을 입지 않는다.
- 팀 리더에게 너무 많은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

행사 결과보고서

아래와 같이 행사결과를 보고합니다(샘플)

부 서 / 개관식 및 커팅식팀		행사명/ 세계선교영성축제		
일 정 / 년 7월 1일		장 소 / 대예배당		
인 원	-		-	
경 비	결산수입 12,700,000 원		결산지출 14,444,550 원	
행사목적	○ 새중앙 선교센터를 개관하며, 세계선교의 허브역할을 감당하기 위함			
행사중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교센터 개관 감사예배 및 기념 커팅식 ○ 외부인사 축하 영성 메시지 및 특별찬양 ○ 기조 강연 “세계선교의 상황과 한국교회의 역할” 주제로 데이비드 게리슨 박사 강연(세계선교 다이제스트 편집인) ○ 기념 커팅식 및 선교센터 투어 및 환영 리셉션 			
평가 및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인사 초청을 통한 개관식 축하 및 커팅식 ○ 선교센터 개관을 통한 선교센터 투어 및 환영 리셉션 			
평 가	구 분	상	중	하
	참석인원	0		
	행사내용	0		
	강 의	0		
	프로그램	0		
	담당자/스텝	0		
기 타				

참고 문헌

국외서적

- Bacher, Robert. *Church Administration: Programs/Process/Purpos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7.
- Heward-Mills, Dag. *Church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Maitland, FL: Xulon Press, 2011.
- Lindgren, Alvin J. *Foundations for Purposeful Church Administr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65.
- Petersen, Bruce L. & Edward A. Thomas & Bob Whistle. *Foundations of Church Administration: Professional Tools for Church Leadership*.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2010.
- Powers, Bruce P. *Church Administration Handbook*. TN: B&H Publishing Group, 2008.
- Welch, Robert H. *Church Administration: Creating Efficiency for Effective Ministry*. TN: B&H Publishing Group, 2011.

번역서적

- 맥가브란, 도날드 A., 윈필드 C. 아안. *교회 성장의 열 단계*. 오태용 역. 서울: 신망애출판사 1993.

국내서적

- 김석환. *교회행정학 개론*. 서울: 영문, 2015.
- 박운암. *선교적 교회와 목회행정*. 서울: 사)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 박영철. *유기적 교회행정*. 대전: 이화, 2015.
- 소재열. *교회 분쟁현장 보고서*. 서울: 브엘북스, 2008.
- 소재열. *교회정관법 총칙*. 서울: 말씀사역, 2013.
- 이장로. *교회경영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6.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2.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2.

조병호. *성경 통독과 통(通)신학*. 서울: 통독원, 2012.

홍호수. *현대 교회행정의 이론*. 안양: 총회출판국, 2011.

논문, 잡지

강대화. “한국 교회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1988.

김진오. “현대목회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매체 활용 방법론 연구: 예배, 설교, 목회행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2014.

박태오. “교회행정이 교회사역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광신대학교, 2011.

백기출. “21세기 교회의 효율적인 행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복음대학원대학교, 2011.

사호행. “한국 교회내의 갈등 원인 분석과 그 갈등 극복을 위한 방안.”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6.

서동훈. “교회내 갈등해결을 위한 목회지원방안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8.

오성균. “사도 바울의 리더십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대학원, 2010.

이금숙. “현대 교회행정의 리더십 발전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이상욱. “한국교회 분쟁에 대한 목회 리더십 관점에서의 반성과 대안모색.”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6.

최철기. “교회행정가의 목회지도력과 미래교회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2017.

새중앙교회 정관.

“새로운 성경이해, 이제는 ‘통성경’이다.” 기독교신문 2014년 12월 8일.

Website.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doopedia).

네이버 지식백과, 『라이프성경사전』 (생명의말씀사, 2006).

네이버 지식백과,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Moonsung Na

Place and Date of Birth: Gwangju, South Korea, Sep.13, 1963

Parent's Names: Hokyun Na and Yangnam Lee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Daedong High School 50, Jeonpyeong-gil, Seo-gu, Gwangju, South Korea	Diploma	Feb. 10, 1982
Collegiate: Chosun University 309, Pilmun-daero, Dong-gu, Gwangju, South Korea.	B.A	Feb. 25, 1989
Graduate: Dankook University 152, Jukjeon-ro, Suji-gu, Yongin-si, Gyeonggi-do, South Korea	Ph.D	Feb.25 2008
Graduate: Anyang University 22, Samdeok-ro 37beon-gil, Manan-gu, Anyang-si, Gyeonggi-do, South Korea	M.div	Aug. 22, 2014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Moonsung Na

Name typed

May 4, 2018

Date